

가사의 장르적 특성과 효율적 지도 방안 (포괄정리요)

< 개 관 >

가사는 시조와 함께 조선조 시가문학의 주류를 형성했던 장르이다. 현재까지 발굴된 것만도 2000편에 가깝고 규방가사의 異本들까지 합하면 수 천 편에 달하여, 작품의 수량 면에서 국문학 유산 중 가장 풍성한 뿐만 아니라 내용도 다양하기 그지없다. 시조에 비해서 장형인 가사는 4음보격 연속체의 울문¹⁾이라는 형태적 요건 이외에도 주제·소재·표현방식·규모·구성 등에 관한 특별한 제약이 없다. 고로 가사 작품들의 내용과 성격은 다채로울 수밖에 없으며, 여러 종류의 경험·사고 및 표현 욕구에 대하여 폭넓게 열려있는 갈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작품 규모에도 제약을 두지 않는 확장성과 개방성은 시조와 상보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가사를 활발하게 창작·보급되게끔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²⁾ 본 발표에서는 이러한 가사의 장르적 특성을 이해하고, 아울러 가사의 교수·학습 요목을 살펴보고 이를 효율적으로 지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

꼭 읽고 정리할 내용

1. 속미인곡
2. 연행가
3. 유배가가와 유배문학(별도로 정리요)
4. 가사의 갈래적 속성
5. 민족문화유산으로서의 가사
6. 가사의 문학사적 위치
7. 조선전기가사와 후기가사의 텍스트 상호성 대비
8. 각주부분은 신경써서 읽도록!

I. 가사의 장르적 특성

1. 가사의 개념

가사는 시조와 더불어 조선시대 국문시가의 양대 산맥을 이루었던 문학 갈래로써 특이한 형태와 표현수법을 갖춘 시가이다. 가사는 시조와 마찬가지로 발생 초기에는 주로 양반사대부의 전유물이다시피 하다가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작자층의 확대가 이루어져서 서민층과 양반의 부녀자층까지 가사를 짓고 즐기게 된다. 또한 개화기를 전후해서는 여러 지식인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주장을 가사를 통해 개진하기도 하였다.

1) 정의

가사란 고려 말에 경기체가가 쇠퇴하면서 나타난 문학 장르로서, 조선조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창작되어 주로 사대부 사회에서 널리 유행하였던 문학을 말한다. 이는 노래로 부르기도 하는 주로 읊조리기 위해 쓰여진 울문의 가사이다.

2) 명칭³⁾

가사는 그 성격이 워낙 다양하고 가변적인 시가이기 때문에, 역사상의 각 시기에 따라 달리 불리기도 했고 또 같은 이름이 다른 것을 지칭하기도 했다. 이는 단순히 명칭에 관계되는 문제만이 아니라 창작과 향수 방식을 포함한 장르 전반의 문제와도 관계있다. 그러나 그 명칭의 쓰임 면에서나 다른 이름을 쓸 때나 실제의 가사 장르가 그 중심에 서 있었기 때문에 명칭 문제가 그리 심각한 것은 아니기도 하다.

오늘날 시의 한 장르명으로 굳어진 '가사'는 글쓰는 이의 주장이나 생각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드러낸다. 이것을 '가사', '歌辭', '歌詞'로 쓸 때 같은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지만, 차이를 두기도 한다. 가령 '歌辭'는 울격을 가졌으며 노래로 불리지 않는 말을 중시하는 문학장르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歌詞'는 실제로 노래로 불리는 노랫말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한 예이다.⁴⁾ 그러나 이러한 세부적 차이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왜냐하면 가사라는 장르는 노래로 불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 그 실현 방식에 있어서 열린 장르이기 때문이다.

2. 가사의 기원과 발생시기

가사의 기원과 발생시기에 대한 학설은 너무나 분분하고 다양하다. 이는 가사가 지닌 내용과 형식의 특성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래서 가사의 기원은 가사가 지닌 속성, 즉 가사의 내용·형식·서술구조·표현상의 특성 및 향유층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모색되어야만 할 것이다.

1) 가사문학의 기원

가사는 작품이 가지는 성격의 특이성 때문에 장르 규정 못지않게 기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견해가 제시되어 왔다.

① 경기체가기원설 - 김태후·고정옥·이동영·조운제⁵⁾·정의섭⁶⁾·박성의·정병욱⁷⁾·정재호

- 1) 한 음보를 이루는 음절수는 3·4조나 4·4조의 음절이 많고 행수에는 제한이 없다.
- 2) 가사는 간결하게 짜인 서정시의 음축성은 없지만, 유장한 감흥을 읊조리고 복잡한 경험을 서술한다든가 이념적 설득을 달성하는 데는 요긴한 효용을 발휘한다.
- 3) 가사의 명칭에 대해서는 문헌 속에서 사용된 것과 학자들의 개념규정에 의해서 쓰이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문헌상으로 나타난 가사의 명칭을 보면 長歌·歌辭·歌詞등을 들 수 있고, 한글로는 가소, ㅁ사 등으로 표기된 것도 있다. 그리고 학자들은 歌辭와 歌詞의 명칭을 가지고 서로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長歌는 악장·경기체가·고려장가·가사 등의 시가에 두루 쓰이고 있으며, 장시조까지 장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장가는 문학 장르의 명칭이 아니고 노랫말의 長型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歌詞는 음악적 용어로 많이 사용되었고 그 의미는 歌樂의 노랫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歌辭는 歌辭와 時調를 동시에 포함한 것으로 보여 문헌상으로 가사는 현재 일반적으로 말하는 가사 문학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었고 용어에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사용한 것도 아니었다. 다만 '詞'와 '辭'의 개념은 같은 뜻으로 쓰이기는 했으나 '辭'는 주로 문장을 위주로 쓰여진 것인데 가창도 할 수 있게 지은 것이고, '詞'는 가창을 위주로 한 시가의 경우라 할 수 있다.
- 4) 학교 현장에서는 가사의 명칭은 크게 구분하여 쓰지 않고 한글로 '가사'를 표기하며, 한자와 병기 할 때는 '가사(歌辭)'로 표기하는 것이 통설이다.
- 5) 趙潤濟, 『朝鮮詩歌의 研究』, p.123.

가사가 경기체가의 형태인 分章이 파괴되고 그것이 연속체로 되면서 가사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한 음수도 3·4음수로 비슷한 모양을 보이기 때문에 경기체가 같은 長歌에서 가사가 기원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이다.⁸⁾

② 악장체기원설 - 정형용·김동욱⁹⁾·유창균
이 설은 「용비어천가」와 「월인천강지곡」과 같은 악장체의 分章形式에서 가사의 辭說形式으로 넘어간 것이라고 하면서 分章의 파괴를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¹⁰⁾

③ 한시현토체기원설 - 이병기¹¹⁾·장덕순
가사가 長篇漢詩를 懸吐하여 읽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것이라는 설이다. 과거의 우리 선조들은 祝文이나 치사(致詞) 외에는 토를 달아서 읽기를 좋아했는데 이 과정에서 가사체의 작품이 출현했다는 주장이다.

④ 시조기원설 - 이능우¹²⁾·김사엽¹³⁾·이태극·서원섭
시조의 初中章을 연속하면 가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설이다. 가사가 시조의 초·중장과 같이 1행 4음보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기가사의 일부는 마지막 행이 시조의 終章과 같은 모습을 지닌다는 데서 근거를 찾는다.¹⁴⁾

⑤ 교술민요기원설 - 조동일¹⁵⁾
모든 문학의 모체를 민요로 보고 서정민요에서 향가와 고려속요가 나오고 서사민요와 설화에서 판소리와 소설이 나왔듯이 4음보 연속체의 교술울문인 교술민요에서 가사가 나왔다는 설이다.

2) 가사문학의 발생시기

- ① 신라말엽 발생설 - 최강현·홍재휴
- ② 고려말엽 발생설¹⁶⁾ - 이병기·박성의·정병욱·이상보·김중우·서원섭
나옹화상의 「서왕가」를 가사의 효시작품으로 보고, 가사의 발생을 불교적인 성격을 가지는 노래에서 찾으려는 이론이다.
- ③ 조선초기 발생설 - 조운제·김사엽·조동일
「서왕가」와 「승원가」 등이 학계에 소개되기 전의 통설로 정극인의 「상춘곡」이 가사의 효시작품이라는 주장을 근거로 하여 제기된 견해이다.
- ④ 조선중기 발생설 - 김수업

3. 가사의 장르적 성격

가사는 고전시가 가운데 가장 논란이 많은 장르로 인식되고 있다. 지금까지 논의된 가사의 장르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첫째 가사를 시가문학으로 규정하여 抒情장르로 보는 견해, 둘째 산문장르의 하나인 隨筆로 보는 견해, 그리고 셋째는 제 4의 장르라고 할 수 있는 敎述장르로 보는 견해, 넷째 독립된 장르로 인정하자는 견해, 다섯째 기존의 어느 장르에도 소속시킬 수 없는 복합된 장르로 파악해야 한다는 견해로 정리 할 수 있다. 현재의 추세는 서정이나, 교술이나, 복합 장르나로 모아지고 있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대체로 교술 장르로 대별되고 있는 양상이다.

4. 가사의 변모양상

조선시대는 대개 임·병 양란을 기점으로 하여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사문학에 있어서도 이러한 일반론은 적용된다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가사문학에 있어서도 전기와 후기 사이에는 작자층·향유층·작품의 형태 등에서 상당한 변별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1) 조선전기의 가사

가사문학이 발생하여 안정된 형태가 완성된 시기로, 정치·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되었던 때이기 때문에 가사도 양반사대부의 중심 되는 시가문학으로서 확고한 자리를 가지고 있었던 기간이기도 하다.

① 작가

이 시기의 작자는 주로 양반 사대부들로서, 한편으로는 한시와 시조를 통해 서정의 표현을 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가사의 유연한 포용력을 빌어 여러 가지 생활체험과 흥취 및 신념을 보다 자유로이 노래하였다. 가사문학에 있어서 쌍벽으로 알려진 松江을 비롯하여 退溪와 栗谷, 宋純 같은 훌륭한 작가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이 시기의 작가들은 호남지역에 집중적으로 밀집되어 있었으며 丁克仁의 「상춘곡」이 송순의 「면양정가」로 그것이 다시 정철의 「관동별곡」에 많은 영향을 주는 등 상호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였다. 여류작가인 許蘭雪軒도 이 시기에 나타났다.

② 형식과 울격

- 6) 정의섭, 『한국시가문학논고』, 민문고, 1988, p.256.
- 7) 정병욱, 『고전시가론』, 신구문화사, 1977, p.199.
- 8) 고려시대의 長歌라고 할 수 있는 「한림별곡」과 「청산별곡」 같은 노래들은 3음보가 중심인데 그것이 가사에 와서 4음보로 된 이유가 설명되어 있지 않다.
- 9) 김동욱, 『국문학개설』, 민중서관, 1992, p.69.
- 10) 악장체의 존속기간이 다른 문학장르에 비해 매우 짧았는데, 가사와 같은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그리고 가사의 발생시기가 악장체의 발생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이 설은 설득력을 잃고 말 것이다.
- 11) 이병기·백철, 『국문학전서』, 신구문화사, 1957, pp.107~108.
- 12) 이능우, 「입문을 위한 국문학개론」, 신아사, 1965, pp.125~126.
- 13) 김사엽, 『李朝時代의 歌謠研究』, 대양출판사, 1956, p.302.
- 14) 이 견해가 설득력을 가지는 것은 시조가 가사보다 먼저 형성되었다는 전제 아래서만 가능하다. 만약 시조의 발생과 가사의 발생이 비슷하거나 시조가 뒤진다면 이 설은 설득력을 잃고 만다. 또한 이 설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시조가 가사보다 훨씬 이전에 안정된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이것을 입증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조선 전기 가사작품 중에는 시조와 같은 형태를 띤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작품들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명도 있어야만 할 것이다.
- 15) 조동일, 「歌辭의 장르 規定」, 『語文學』 21, 한국어문학회, 1999, p.79.
- 16) 근래에 김중우 교수에 의해서 이두로 정착된 <僧元歌>가 발굴된 이후로는 학계의 동향이 고려말엽 발생설로 기울고 있다.

3·4조의 短-長의 상승 리듬으로 전기 가사의 형식은 조선 후기의 4·4조의 長-長의 수평 리듬에 비해 앞이 가볍고 뒤가 무거운 특징을 갖는다. 이것은 전·후 비중의 차이에서 오는 울격의 쾌감을 줄인 것이다. 가사의 길이가 100행 내외로 후기 가사에 비해 몹시 짧은 특징이 있다. 1행 4음보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片句現像¹⁷⁾도 나타나는데, 이는 특히 시상을 전환할 때 많이 생긴다. 하지만 초기를 지나 조선 중기에 지어진 작품들은 비교적 안정된 4음보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結詞의 형태가 마지막 행을 시조의 종장과 같은 형태로 끝맺는 방식으로 전기 가사에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다.

③ 전기가사의 주제

「서왕가」를 가사의 효시작품으로 잡는다면 발생 초기에는 종교적 색채가 강한 작품이나 교훈적인 작품 등으로 그 소재와 주제가 한정되었으나 조선조에 이르러서는 사대부들의 생활체험이나 이념에 따라 소재를 비교적 자유로이 선택하게 되면서 주제도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난다.

첫째, 전기가사의 주제 중 가장 중심을 이루는 것은 산수자연에서 노니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자신을 수양하는 江湖襟情 이라고 할 수 있다.¹⁸⁾ 둘째, 「관서별곡」이나 「관동별곡」과 같이 관리가 임지로 부임해 가는 노정을 노래하거나 임지의 산천경계를 보고 느낀 감흥을 주제로 한 작품도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¹⁹⁾ 셋째, 유배를 간 사실과 거기에서 느끼는 자신의 감흥을 주제로 한 작품들로 「만분가」, 「사미인곡」, 「속미인곡」이 이에 속한다. 이들 작품은 유배지에서 겪는 온갖 어려움을 노래하면서도 군주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것이 대부분이다.²⁰⁾ 넷째, 사대부는 정치를 통해 백성을 가르치고 지도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정한 이념을 강조하는 작품도 많이 쓰고 있다. 「勸善指路歌」, 「道德歌」, 「自警別曲」 등이 이러한 교훈적인 것을 주제로 하고 있는 작품들인데, 주로 유학에서 강조하는 仁義禮智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조선 전기의 가사들은 주된 주제가 강호한정·유배·은일·충신연군·교훈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2) 조선후기의 가사

조선 후기는 임·병 양란이 끝난 17세기부터 19세기 말기까지를 가리키는데, 가사의 작가층이 확대되면서 전기의 가사형식이 많이 파괴되어 새로운 모습을 가진 작품들이 많이 나타난다.

① 작가

조선조 후기는 전기에 비해 작가층이 엄청나게 확대되었다. 사대부 작가를 비롯하여, 중인 이하 서민층으로 보이는 無名氏作家, 그리고 승려와 귀화인, 또한 여성작가의 대거 출현 등이 그것이다.

첫째, 사대부작가들은 한 사람이 여러 작품을 쓰는 多作作家가 많이 나타난다.²¹⁾ 둘째, 승려작가의 활동이 나타난다.²²⁾ 셋째, 귀화인 작가로는 왜병으로 왔다가 귀화한 김충선의 「모화당술회」가 있다. 넷째, 이름을 알 수 없는 작가가 대거 등장하는 것도 조선 후기의 작가층에 보이는 특징이다. 작품의 내용이나 표현방식·어휘 등을 보아서는 서민층이 지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작가가 알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無名氏라고 하는 것이다. 다섯째,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여성작가가 대거 참여하여 가사를 짓는 현상이 나타난다.²³⁾

② 형식과 울격

조선 후기에는 4·4조의 울조가 중심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기존의 가사는 3·4조나 4·4조의 4보격이 중심이었으나 노계가사에서는 1행이 6음보로 이루어지거나 2음보나 3음보가 1행을 이루는 파격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현상은 낭송 위주로 되면서 詞意傳達를 우선으로 하는 가운데 생겨난 현상이라 보여진다. 다음으로 형태상의 변모로는 서두에 산문적인 사설을 넣는 것이 나타난다. 이것은 가사가 조선 후기 문학의 산문화 경향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가사의 이러한 산문화 경향과 더불어 장형의 가사가 등장하는 것도 조선 후기가사의 형태상 특성이라 할 수 있다.²⁴⁾ 가사의 길이가 한편으로는 길어졌지만 또 한편으로는 짧아지는 현상도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개화기 가사의 가창화한 작품들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²⁵⁾ 이와 더불어 개화기에는 가사의 歌唱化가 이루어진다.

③주제와 소재

조선 후기의 가사도 양반들이 지은 작품에는 전기의 주제와 소재를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 많다.²⁶⁾ 그러나 후기의 가사는 조선 전기 가사에 비해 주제와 소재가 확대되는 현상을 보여준다.

첫째, 전란을 소재로 하여 쓰여진 작품을 보면 임진·병자 양란을 겪으면서 느낀 외적에 대한

17) 「면양정가」에 6개, 「관서별곡」에 8개, 「미인별곡」에 13개 등에 편구현상이 보인다.
 18) 강호한정의 가사들은 다음과 같은 일정한 전개방식이 있다. 서사에서는 강호에 머무르게 된 취지, 혹은 자연을 찾아가는 화자의 모습을 노래하고, 본사에서는 대자연 속에 살아가는 화자의 생활양식을 표현한다. 그리고 결사에서는 강호에 살면서 安貧樂道하겠다는 뜻과 성은에 감사한다는 자기 인식, 혹은 깨달음의 결의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끝을 맺는다.
 19) 기행가사는 서두에 기행의 동기와 목적이 표현되고 본사에서는 자연경관을 살펴보는 과정이 그려진다. 그리고 결사에서는 그러한 기행을 통해서 느낀 감정과 군주에 대한 충성이 노래되고 있다.
 20) 유배가사의 내용을 보면 유배지로 가는 도중에 겪는 어려움이나 주변의 경관을 노래하고 좌절감과 패배의식을 임금에 대한 충성심으로 극복하면서 임금 곁으로 다시 돌아가서 충성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 공통된 표현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21) 박인로는 「태평사」, 「선상탄」, 「사제곡」, 「누항사」, 「독락당」, 「노계가」, 「입암별곡」, 「소유정가」 등 많은 작품을 남기고 있다.
 22) 나옹화상의 「서왕가」처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아닌, 서지학적으로 확실한 침필선사의 「귀산곡」, 「정학도가」, 「태평곡」이 나타났다.
 23) 內房歌辭라고 이름 붙여진 여성이 지은 가사는 대부분이 작가가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정부인 연안씨씨의 「쌍벽가」와 「부여노정가」, 김대비의 「훈민가」 등은 작가를 알 수 있는 작품이다.
 24) 수백 행이나 수천 행으로 늘어난 작품들이 등장하는데, 「한양가」나 「일동장유가」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25) 짧아진 가사는 주로 후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동가월령가」, 「달거리」, 「사친가」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26) 산수자연과 벗하며 사는 전원생활의 즐거움을 노래한 「사제곡」, 「노계가」, 「낙은별곡」, 「개암가」 등의 작품들과 지방관으로 나가 있으면서 부임지의 산천과 임금에 대한 충성을 노래한 「출세곡」, 「서경별곡」, 「일동장유가」 같은 기행가사, 정치적으로 패배하고 귀양가서 사는 유배생활을 그린 「차도사」, 「복관곡」, 「별사미인곡」 등의 작품과 「낭유사」, 「도통가」 등의 교훈가사 등이 그것이다.

적개심, 그리고 국가와 민족에 대한 애국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²⁷⁾ 둘째, 타락한 정치현실이나 잘못된 사회현상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으로 현실을 노래한 가사들이 나타난다.²⁸⁾ 셋째, 조선 후기에는 實事求是의 학문인 실학이 발달하였던 만큼 실용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가사가 많이 보인다.²⁹⁾ 넷째, 남녀의 사랑을 주제로 한 애정가사도 조선 후기가사의 중요한 작품군이라고 할 수 있다.³⁰⁾ 다섯째, 조선 후기에는 종교적인 이념을 포교할 목적으로 지어진 가사들이 등장한다.³¹⁾ 그 외에도 독립투쟁을 부르짖는 가사나 신문명에 대한 비판·찬양하는 가사나 나타난다.³²⁾ 또한 위기에 처한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위하여 의병을 일으킨 사대부들의 항일의병가사도 19세기 말의 새로운 경향의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다.

II. 가사의 교수·학습 요목

1. 가사 장르의 교수·학습 내용³³⁾

교수·학습 내용	세 부 내 용
1 가사의 양식적 특성에 관한 지식	· 가사의 개념을 정의한다. · 가사문학의 발생 시기를 안다. · 전기 가사문학과 후기 가사문학의 차이점을 안다. · 가사문학의 형식상 특성을 찾아낸다. · 가사문학과 관련된 제반 용어들을 설명할 수 있다. · 여러 분류 기준에 의한 가사문학의 종류를 열거할 수 있다.
2 문체 및 수사 이해	· 가사체와 문장의 특징을 기술할 수 있다. · 민요와 시조와 판소리 문체와 가사를 비교할 수 있다. · 낙구와 시조의 종장을 연계시킨다.
3 양식의 통시적·공시적 비교와 대조	· 향가, 고려속요, 경기체가, 한시 등에 나타나는 가사문학의 뿌리를 찾아본다. · 전기가사와 후기가사, 개화기 가사의 전개과정을 설명한다. · 시조문학과 가사문학의 양식적 차이를 변별한다. · 작품의 문학사적 의의에 대해 토론한다.
4 양식의 문학사적 의의 평가	· 가사문학이 전기와 후기에 달라지는 이유에 대해 토론한다. · 조선조의 시조문학과 가사문학, 소설문학 등이 지니는 의미를 비교한다. · 가사문학 발생의 의의와 그 소멸 이유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한다.

2. 가사 작품별 교수·학습 내용

1) 「면양정가(倅仰亭歌)」 - 송순(宋純 1493-1583)³⁴⁾

① 학습 지도상의 유의점³⁵⁾

첫째, 작품에서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구절을 파악하며 읽고 울동감을 느껴 보도록 한다. 둘째, 계절의 흥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송순의 「풍상이 서거 친 날에」의 시조에 나타난 작가의 태도와 「면양정가」의 작품에 나타난 태도에 차이점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작품

无等山(무등산) 혼 활기 뉘희 동다허로 버더 이서 멀리 제쳐 와 露月峯(제월봉)의 되여거늘 無邊大野(무변대야)의 모습 짐작 호노라 일곱 구비 흠뻑머쳐 머드머드 버려는 듯. 가운데 구빈는 굶고 든 늘근 농이 선증을 7 썩야 머리롤 알쳐시니 너르바회 우희 松竹(송죽)을 해하고 亭子(정자)를 안쳐시니 구름 툰 靑鶴(청학)이 千里(천 리)를 가리라 두 느리 버려는 듯. 玉泉山(옥천산) 龍泉山(용천산) 느린 물히 亭子(정자) 앞 너븐 들히 울올히 퍼진 드시 넘거든 기도라 프르거든 희지마니 雙龍(쌍룡)이 뒤트는 듯 긴 김을 치 췌는 듯 어드러로 가노라 모습 일 빅앗바 닷는 듯 썩로는 듯 밤츠르로 흐르는 듯 淸江(사정)은 눈긋치 퍼졌거든 이르러는 기력기느 므스거슬 어로노라 안크락 누리락 모드락 흐트락 蘆花(노화)를 스이 두고 우러름 좃니고. 너브 길 밧기요 긴 하늘 아릭 두로고 조즌 거슨 모한가 屏風(병풍)인가 그림가 아닌 가. 노픈 듯 느즌 듯 굶는 듯 닳는 듯 숨거니 뵈거니 가거니 머물거니 이르러는 가운데 일흔 닷 양향야 하날도 져지 아녀 웃득이 췌는 거서 秋月山(추월산) 머리 짓고 龍巖山(용귀산) 鳳巖山(봉선산)	무등산 한 지맥이 동쪽으로 뻗어 있어 (무등산을)멀리 떨치고(멀리 떼어 버리고) 나와 제월봉 이 되였거늘(제월봉은) 끝없이 넓은 벌판에 무슨 생각 을 하느라고 일곱 굵이가 한 곳에 움츠려 무더기무더 기 벌여 놓은 듯하고(제월봉의) 가운데 굵이는 구멍에 든 늙은 용이 선잠(뜻잠)을 막 깨어 머리를 얹어 놓은 듯하니 너르바위 위에 소나무와 대나무를 해치고 정자 를 앉혔으니 구름을 탄 청학이 천리를 가려고 두 날개 를 벌리고 있는 듯. 옥천산, 용천산에서 흘러 내린 물 이 정자 앞 넓은 들에 끊임없이 퍼진 듯이 넓거든 길 지나 말지, 프르거든 희지나 말지 두 마리의 용이 몸 을 뒤트는 듯, 긴 비단을 짝 펼쳐놓은 듯 어디로 가느 라고 무슨 일이 바빠서 달리는 듯, 따르는 듯, 밤낮으 로 흐르는 듯. 물 따라 펼쳐진 모래밭은 눈같이(하얗 게) 펼쳐져 있는데 여지럽게 나는 기러기는 무엇을 어 르느라고 앉았다가 날았다가, 모였다 흩어졌다가(하면 서) 갈대꽃을 사이에 두고 울면서 따라다니느냐. 넓은 길 밖이요, 긴 하늘 아래 두르고 꽃은 것은 산인 가, 병풍인가, 그림인가 아닌가. 높은 듯 낮은 듯, 끊어 지는 듯 이어지는 듯 숨거니 보이거니, 가거니 머물거 니(숨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며, 가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며) 어지러운 가운데 유명한 채 뽕내며(유명한 척하 며) 하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뚝이 서 있는 여러 산 봉우리 가운데, 추월산이 머리를 이루고 용귀산, 봉선 산 불대산, 어등산 용진산, 금성산이 허공에 늘어져 있 거든(허공에 벌여져 있으니) 멀리 가까이에 있는 푸른 절벽에 머문 것도 많기도 하구나. 흰 구름, 푸른 안개와 늘, 푸른 것은 산아지랑이로구나.
--	--

27) 전쟁가사에 드는 작품으로는 전쟁의 비참한 현실을 비교적 사실적으로 묘사한 「태평사」, 「용사음」과 포로가 되어 고향을 그리움을 그려낸 「도대마도가」, 「제일본장가」 등이 있다.
 28) 「용사음」, 「고궁답주인가」, 「영남가」 등으로 사회에 대한 비판과 찬양을 아울러 나타내고 있다.
 29) 미풍양속과 농사일을 권장하는 것으로 「동가월령가」, 「전원사시가」 등이 있다.
 30) 남녀의 사랑에 대한 표현은 「사미인곡」 같은 데서 보이지만 그것은 군신간의 사랑을 얘기한 것이고 민우룡의 「금루사」에서 양반가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기생과의 사랑을 대답하게 묘사하고 있다.
 31) 종교가사로는 천주사상을 알리기 위해 지어진 것으로 보이는 「심계명가」와 동학의 사상을 알리기 위한 「용담유사」에 실린 「용담가」 등이 있다. 여기서 「용담가」는 지금까지 있어 왔던 양반사대부의 가사와는 전혀 성질이 다른 것으로서 개화기가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작품으로 평가된다.
 32) 빼앗긴 주권을 되찾을 것을 부르짖는 「대한복수가」와 개화를 비판하는 「성조감구가」, 그리고 개화를 찬양하는 「동유감흥록」 등이 있다.
 33) 육동승, 「고등학교 가사 교육의 지도 방안」,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34) 호는 면양정(倅仰亭), 기촌(企村). 조선 중종-선조 때의 문신. 치사(致仕)하고 담양(潭陽) 제월봉 아래에 석림정사(石林精舍)와 면양정(倅仰亭)을 짓고 가곡을 지었다. 황진이와 함께 시가 문학의 정수를 계승하여 명작들을 남겼다. 저서로는 「기촌집(企村集)」과 「면양집(倅仰集)」이 있으며, 작품으로는 「면양정가」가 있다.
 35) 김대행 외, 「문학」상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교학(김), 2002. (소단원-윤율과 여조)

<p>佛臺山(불대산) 漁燈山(어등산) 潘珍山(용진산) 錦城山(금성산)이 虛空(허공)의 버려거든 遠近(원근) 蒼崖(창애)의 머문 것도 하도 할사. 흰구름 브흰 煙靄(연하) 프로니는 山嵐(산람)이라. 千巖(천암) 萬壑(만학)을 제 집으로 사마 두고 나명성 들명성 일히도 구는지고. 오르거니 느리거니 長空(장공)의 썩나거니 廣野(광야)로 거너거니 프르락 불그락 여트락 지트락 斜陽(사양)과 서거러이 細雨(세우)조조 쐤리는다. 藍輿(남여)를 비야 타고 술 아리 구분 길로 오며 가며 흐는 적의 綠腸(녹양)의 우는 黃鶯(황영) 嬌態(교태) 겨워 흐는고 야. 나모 새 죽죽지어 樹陰(수음)이 얼린 적의 百尺(백척) 欄干(난간)의 기 조름 내어 퍼니 水面(수면) 涼風(양풍)야 굿칠 줄 모로는가. 즌 서리 싸진 후의 산 빗치 錦繡(금슈)로다. 黃雲(황운)은 쏘 엇지 萬頃(만경)에 편지기도. 漁笛(어적)도 흥을 계워 들릴 썩라 보니는다. 草木(초목) 다 진 후의 江山(강산)이 뭇물커늘 造物(조물)이 현스하야 氷雪(빙설)로 꾸며 내니 瓊宮瑤臺(경궁요대)와 玉海銀山(옥해은산)이 眠底(안저)에 버려세라. 乾坤(건곤)도 가을열사 간 때마다 경이로다. 人間(인간)을 썩나와도 내 몸이 겨를 업다. 니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드르려코 박롭도 혀려 하고 들도 아즈려코 봄으란 언제 줍고 고기란 언제 낙고 柴扉(시비)란 뉘 다드며 딛 곳츠란 뉘 쏘려로. 아츰이 낮보거니 나조허라 슬홀소나. 오늘리 不足(부족)커니 來日(내일)리라 有餘(유여) 혀라. 이 궤히 안자 보고 저 궤히 겨러 보니 煩勞(번로)흔 막음의 버릴 일리 아조 업다. 실 사이 업거든 길히나 전혀야. 다만 흥 靑藜杖(청려장)이 다 미되어 가노되라. 술리 낙어거니 벗지라 업슬소나. 불늑며 탁이며 혀이며 이야며 온가지 소리로 醉興(취흥)을 비야거니 근심이라 이시며 시름이라 브르시라. 누으락 안즈락 구브락 저즈락 울프락 푹팍허락 노혜로 소그니 天地(천지)도 넓고넓고 日月(일월) 흥가혀다. 羲皇(희황)을 모을너니 니적이야 괴로고야 神仙(신선)이 엇터던지 이 몸이야 괴로고야. 江山風月(강산풍월) 거늘리고 내 百年(백년)을 다 누리 면 岳陽樓(약양루) 상의 李太白(이태백)이 사라오다. 浩蕩(호탕) 情懷(정회)야 이에서 더홀소나. 이 몸이 이렇 굶도 赤君恩(적군은)이샷다.</p>	<p>수많은 바위와 골짜기를 제 집으로 삼아 두고 나면서 들면서(나오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면서) 아양 도 떠는구나. 날아오르다가, 내려 앉다가(오르기도 하 고 내리기도 하며) 공중으로 떠났다가, 넓은 들로 건너 갔다가(먼 하늘로 떠나기도 하고 넓은 들판으로 건너 가기도 하며) 푸르기도 하고 붉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질기도 하고 석양과 섞이어 가랑비조차 뿌린다(뿌리느 냐). 뚜껑 없는 가마를 재촉해 타고 소나무 아래 굶은 길로 오며 가며 하는 때에 푸른 버드나무에서 우는 꾀 꼬리는 흥에 겨워 아양을 떠는구나. 나무와 역새풀이 우거져 녹음이 짙어진 때에 긴 난간에서 긴 줄음을 내 어 퍼니 물위에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이야 그칠 줄 을 모르는구나. 뒤서리 걷힌 후에 산빛이 수놓은 비단 같구나. 어떻게 익은 곡식은 또 어찌 넓은 들에 퍼져 있는고? 고기잡이를 하며 부르는 피리도 흥을 이기지 못하여 달을 따라 계속 부는가.(어부가 부는 피리도 흥을 이기 지 못하여 달을 따라 부는가?) 초목이 다 떨어진 후에 강산이 (눈 속에)묻혔거늘 조물주가 야단스러워 얼음과 눈으로 꾸며 내니 경궁요대와 옥해은산(과 같이 아름다운 절경이)같은 절 경이 눈 아래 펼쳐져 있구나 하늘과 땅도 풍성하구나.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경치 로구나. 인간 세상을 떠나와도 내 몸이 한가로울 겨를이 없다. 이것도 보려하고 저것도 들으려 하고 바람도 쐬려 하고(골어당기려 하고), 달도 맞으려 하고 받은 언제 줍고 고기는 언제 남고(남으며) 사립문은 누 가 닫으며 떨어진 꽃은 누가 쓸 것인가. 아침에도 (시간이) 모자라거니(부족한데) 저녁이라고 (자연을 완상할 시간이)싫을소나. 오늘도 (자연을 완상할 시간이)부족한데 내일이라고 (자연을 완상할 시간이)넉넉하라. 이 산에 앉아보고 저 산에 걸어보니 번거로운 마음이지만 버릴 일이 전혀 없다. 실 사이도 없는 데 (이 아름다운 자연을 구경하 라 울)길이나마 (사람들에게)전할 틈이 있으랴. 다만 하 나의 푸른 명아주 지팡이가 다 무뎠어져 가는구나. 술이 익어가니 벗이 없을 것인가 (노래를)부르게 하며, (가야금, 거문고 등의 악기를)타 게 하며 (해금 등의 악기를)켜게 하며, (방울 등을)흔들 며 온갖 소리로 취흥을 계속하니 근심이라 있으며 시름이라 붙었으랴(붙어 있겠는가) 누웠다가 앉았다가 구부렀다가 쫓았다가(놀기도 하고 앉기도 하며, 구부리기도 하고 쫓히기도 하며) (시름)을 다가 휘파람을 불었다가 마음 놓고 노니 천지도 넓으 며 세월도 한가하다. 북희씨도 태평성대를 모르고 지 냈더니 지금이야말로 그때로구나 신선이 어떤 것인가, 이 몸이야말로 신선이로구나 아름다운 자연을 거느리고 내 한평생을 다 누리면 약 양루 위에 이태백이 살아온들 넓고 끝없는 정다운 회 포야 이보다 더할소냐(이것보다 더하겠느냐?) 이 몸이 이렇게 지내는 것도 역시 임금의 은혜이시도다.</p>
--	--

출전 : 『잡가』 이성의(李聖儀) 본

③ 핵심정리

- 갈래 : 서정 가사. 양반 가사. 은일 가사
- 연대 : 중종 19년(1524). 원작의 창작은 16세기. 필사본은 18세기 이후의 표기임
- 율격 : 3(4).4조를 기조로 한 4음보 연속체
- 어조 : 풍류를 즐기는 호방한 어조
- 구성 : 146구로 되어 있으며, 기-승-전-결 79구의 4단 구성
- 성격 : 강호가도(江湖歌道)의 노래. 서정적
- 제재 : 면양정에서의 자연의 승경(勝景)
- 주제 : 대자연 속에서의 풍류와 군은(君恩)
- 의의 : 강호가도를 확립한 노래. 정극인의 「상춘곡」을 이어받고, 정철의 「성산별곡」에 영향을 줌

④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무등곡(無等曲)」이라고도 하며, 필사본 『잡가(雜歌)』에 국문 가사가 전하고 지은이의 문집 『면양집』에 한역 가사가 실려 있다. 서사에서는 제월봉 주위의 경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데, 산봉우리를 의인화하여 생동감 있는 묘사를 보여 주고 있다. 본사에서는 면양정에서 바라보이는 근경과 원경에 대하여 묘사하고, 사계절의 아름다운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 결사에서는 그 속에서 지내는 작가의 풍류스런 생활을 노래한 다음 임금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끝을 맺는다.

전원에 물러나 자연의 한가로움을 즐기며 심성을 수양하는 이른바 강호가도(江湖歌道)의 전형적인 노래이며, 물 흐르듯 하는 유려한 문체가 아름답다. 이수광의 『지봉유설』이나 홍만종의 『순오지』 등에서는 이 작품을 “호연지기를 유감없이 표현했으며, 어사(語辭)가 청완하고 유창하다.”고 높이 평가하였다. 정극인의 「상춘곡」과 더불어 호남 가사 문학의 원류가 되며, 그 내용·형식·묘사 등에서 정철의 「성산별곡」에 영향을 미쳤다.

⑤ 문학사적 위치

정극인의 「상춘곡」에서 자연 친화의 사상을 이어받은 이 작품은 그 후 정철의 「성산별곡」과 「관동별곡」으로 이어지는 교량적 구실을 하여, 호남 가사 문학의 계통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강호가도의 대표적 작품이다. 특히, 이 작품에 이르러서 자연미를 발견하고 자연의 흥취를 즐기는 정서가 본격적으로 등장하여 그 뒤에 두고두고 모범이 되며 많은 작품에 영향을 끼쳤다는 평을 듣고 있다.

- ⑥ 「면양정가」의 가치 - 표현 방식의 제고 → 풍류미의 선양(宣揚), 격조 높은 시풍 제시
- 구성 체제와 표현 형식의 완숙성
- 우리말의 자유자재한 구사와 기발한 조사법(措辭法)의 활용
- 자연의 변화를 실감나게 묘사함
- 율격과 대구의 활용 → 아름다움과 대립의 흥미를 유발하여 문장을 다양하고 유려하게 함
- 독창적인 표현의 개척

⑦ 「면양정가」의 낙구

이 작품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에 묻혀 사는 자신의 생활이 모두 임금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는 작자가 자연 속에 묻혀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세속적 진출을 꿈꾸고 있으며, 완전한 자연 합일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강호가도 시인들의 귀착점이 될 수 없음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즉, 여기에 나타난 자연은 도의와 심성을 기르는 군자의 벗일 뿐이지 완전히 융합된 삶을 이루어야 할 대상은 아니었다. 귀거래[歸去來 : 관직은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감. 지사 귀향(致仕歸鄉)]을 명분으로 삼고 때를 기다리며 쉬어가는 안식처로 자연을 인식하였던 16세기 조선조 사대부들의 전형적인 자연관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2) 「사미인곡(思美人曲)」 - 정철(鄭澈 1536-1593)³⁶⁾

① 학습 지도상의 유의점³⁷⁾

첫째, 이 작품에서 화자는 봄과 여름·가을·겨울에 따라 변하는 자신의 정서를 노래하였다. 이렇게 계절의 변화에 따라 변하는 화자의 다양한 정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이 작품에서 작가는 화자를 여성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여러 수사법을 사용하여 상황이 나 정서를 표현하였다. 여러 가지 수사법이나 문학적 장치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본다. 셋째, 4음보의 율격을 바탕으로 하는 가사 문학이 갖는 형식적인 특징을 알아본다.

② 작품 보기

<p>이 몸 삼기실 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혼신 緣分(緣分)이며 하늘 모를 일러인가 나 하나 곁에 있고 님 하나 날 괴시니 이 막음 이 사랑 견줄 뉘 노여 업다 평생생심에 願원(願)호되니 혼디 네자 호얏더니 늙거야 므스 일로 외오 두고 글이논고 엇그제 님을 피서 廣廣(廣)寒(寒)殿(殿)의 올났더니 그 터디 엇디하야 下(下)하(下)界(界)에 느려오니 울 저귀 비스 머리 헛뜰은 디 三(三)年(年)년(年)일(日)쇠 臘(臘)臘(臘)脂(脂)粉(粉) 잇(잇)나(나)는 놀 위(위)하(하)야 고이 홀고 막음의 미친 실을 疊(疊)疊(疊)疊(疊)이 빠져 이서 짓느니 한숨이오 디느니 눈물이라 人(人)生(生)生(生)은 有(有)限(限)호(호)던(던) 시(시)름(름)도 그(그)지(지)업(업)다 無(無)무(無)心(心)심(심)흔 歲(歲)月(月)월(월)은 물 흐르 듯 흐느고야 炎(炎)源(源)냥이 썰뵈 아라 가는 듯 고터 오니 듯거니 보거니 늦길 일도 하도 할사</p>	<p>이 몸이 태어날 때에 입을 따라 태어나니, 한평생 함께 살아갈 인연이며 이 또한 하늘이 어찌 모를 일인던가? 나는 오직 젊어 있고, 임은 오직 나를 사랑하시니, 이 마음과 이 사랑을 비교할 곳이 다시없다. 평생에 원하되 입과 함께 살아가려 하였더니, 늙어서야 무슨 일로 외파로 두고 그리워하는고? 엇그제에는 입을 모시고 광한전에 올라 있었더니, 그 동안에 어찌하여 속세에 내려 왔느냐? 내려올 때에 빗은 머리가 형클어진 지 3년일세. 언지와 분이 있네마는 누구를 위하여 곱게 단장할꼬? 마음에 맺힌 근심이 겹겹으로 쌓여 있어서 짓는 것이 한숨이요, 흐르는 것이 눈물이라. 인생은 한정이 있는데 근심은 한이 없다.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듯 하는구나. 더웠다 서늘해졌다 하는 계절의 바뀔이 때를 알아 지나갔다가는 이내 다시 돌아오니, 듣거니 보거니 하는 가운데 느낄 일이 많기도 하구나.</p>
<p>東(東)風(風)풍(풍)이 건(건)뒀(뒀) 부(부)러 積(積)적(적)雪(雪)설(설)을 헤(헤)터 내(내)니 窓(窓)창(창) 밧(밧)기 심(심)근 梅(梅)미(미)花(花)화(화) 두(두)세(세) 가(가)지 피(피)여(여)세(세)라 又(又)득(득) 冷(冷)냉(냉)담(담)향(향)던(던) 暗(暗)암(암)香(香)향은 므(므)스 일(일)고 黃(黃)황(황)昏(昏)昏(昏)의 들(들)이 조(조)차(차) 버(버)마(마)터(터) 빗(빗)쳐(쳐)니 늦(늦)기는 듯 반(반)기는 듯 님(님)이(이)신(신)가 아(아)니(니)신(신)가 더 梅(梅)미(미)花(花)화(화) 것(것)겨 내(내)여 님(님) 겨(겨)신(신) 디(디) 보(보)내(내)오(오)져 님(님)이 너(너)를 보(보)고 엇(엇)터타(타) 너(너)기(기)실(실)고</p>	<p>봄바람이 문득 불어 쌓인 눈을 헤쳐 내니, 창밖에 심은 매화가 두세 가지 피었구나. 가뜩이나 쌀쌀하고 답답한데, 그윽히 풍겨 오는 향기는 무슨 일인고? 황혼에 달이 따라와 베크머리에 비치니, 느껴 우는 듯 반가워하는 듯하니, 임이신가 아니신가 저 매화를 꺾어 내어 임 계신 곳에 보내고 싶다. 그러면 임이 너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꼬?</p>
<p>꽃 디고 새 님 나니 緣(緣)녹(녹)除(除)음이 쏘(쏘)렸(렸)느(느)디 羅(羅)나(나)轉(轉)위(위) 寂(寂)적(적)寞(寞)막(막)고(고) 纏(纏)수(수)幕(막)이 뷔(뷔)여(여) 잇(잇)다 美(美)부(부)蓉(蓉)옹(옹)을 거(거)더 노(노)고 孔(孔)공(공)雀(雀)작(작)을 돌(돌)려(려) 두(두)니 又(又)득(득) 시(시)름(름) 한(한)디 날(날)은 엇(엇)디 기(기)뒀(뒀)던(던)고 鸞(鸞)원(원)鶯(鶯)양(양)錦(錦)금(금) 비(비)혀(혀) 노(노)고 五(五)오(오)色(색)식(식)線(線)선(선) 플(플)터(터) 내(내)여 금(금)자(자)히 견(견)화(화)이서 님(님)의 옷(옷) 지(지)어 내(내)니 手(手)수(수)品(품)은 杼(杼)와 制(制)제(제)度(도)도(도) 마(마)줄(줄)시(시)고 珊(珊)珊(珊)瑚(瑚)호(호)쑤(쑤) 지(지)게 우(우)히 白(白)벽(벽)玉(옥)옥(옥)函(함)의 다(다)마(마) 두(두)고 님(님)의(의)게 보(보)내(내)오(오)려 님(님) 겨(겨)신(신) 디(디) 브(브)라(라)보(보)니 山(山)산(산)인(인)가 구(구)름(름)인(인)가 머(머)호(호)도 머(머)홀(홀)시(시)고 千(千)천(천)리(리)의 萬(萬)만(만)리(리) 길(길)히 뉘(뉘)러(러)서 차(차)자(자) 같(같)고 니(니)거(거)든 여(여)러(러) 두(두)고 날(날)인(인)가 반(반)기(기)실(실)가</p>	<p>꽃잎이 지고 새 잎 나니 녹음이 우거져 나무 그들이 깔렸는데 비단 포장은 쓸쓸히 걸렸고, 수 놓은 장막만이 드리워져 텅 비어 있다. 연꽃 무늬가 있는 방장을 걷어 놓고, 공작을 수 놓은 병풍을 돌려 두니, 가뜩이나 근심 걱정이 많은데, 날은 어찌 길던? 원앙새 무늬가 든 비단을 베어 놓고 오색실을 풀어 내어 금으로 만든 자로 재어서 임의 옷을 만들어 내니, 솜씨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격식도 갖추었구나. 산호수로 만든 지게 위에 백옥으로 만든 함에 담아 얹혀 두고, 임에게 보내려고 임 계신 곳을 바라보니, 산인지 구름인지 험하기도 험하구나. 천 리 만 리나 되는 먼나먼 길을 누가 찾아갈꼬? 가거든 열어 두고 나를 보신 듯이 반가워하실까?</p>
<p>흥(흥)라(라)밤(밤) 서(서)리(리)김(김)의 기(기)러(러)기(기) 우(우)러(러)낼(낼) 제(제) 危(危)위(위)樓(樓)루(루)에 혼(혼)자(자) 올(올)나 水(水)수(수)晶(晶)정(정)簾(簾)념(념)을 거(거)든(든)마(마) 리 東(東)동(동)山(산)산(산)의 들(들)이 나(나)고 北(北)북(북)極(극)극(극)의 별(별)이 보(보)니 님(님)이(이)신(신)가 반(반)기(기)니 눈(눈)물(물)이 절(절)로 난(난)다 淸(淸)청(청)光(광)광(광)을 띄(띄)워(워) 내(내)여 鳳(鳳)봉(봉)凰(황)황(황)樓(樓)누(누)의 붓(붓)고(고)져 樓(樓)누(누) 우(우)히 거(거)러(러) 두(두)고 八(八)팔(팔)荒(荒)황(황)의 다(다) 비(비)쳐(쳐) 深(深)심(심)山(산)山(산) 窮(窮)궁(궁)곡(곡) 곁(곁)나(나) 7(7)미(미) 밍(밍)고(고)쇼(쇼)서 乾(乾)건(건)坤(坤)곤(곤)이 閉(閉)폐(폐)塞(塞)삭(삭)하(하)야 白(白)벽(벽)雪(雪)설(설)이 흥(흥) 비(비)친(친) 제(제) 사(사)름(름)은 杼(杼)와 늘(늘)새(새)도 긋(긋)쳐(쳐) 잇(잇)다</p>	<p>하룻밤 사이의 서리 내릴 무렵에 기러기 울며 날아갈 때, 높다란 누각에 혼자 올라서 수정알로 만든 발을 걸으니, 동산에 달이 떠오르고 북극성이 보이므로, 임이신가 하여 반가워하니 눈물이 절로 난다. 저 맑은 달빛을 일으켜 내어 임이 계신 궁궐에 부쳐 보내고 싶다. 누각 위에 걸어 두고 온 세상을 비추어, 깊은 산골짜기에도 대낮같이 환하게 만드소서. 천지가 겨울의 추위에 얼어 생기가 막혀, 흰 눈이 일색으로 덮</p>

36) 조선 선조 때의 문신. 시인. 호는 송강(松江). 서인의 영수로서 당쟁에 깊이 관여함. 고산 윤선도와 더불어 고전시가 문학의 쌍벽을 이루고 있다. 작품에는 「성산별곡」, 「관동별곡」, 「사미인곡」, 「속미인곡」 등의 가사와 사설시조인 「장진주사(將進酒辭)」, 「훈민가(訓民歌)」를 비롯한 시조 79수가 있음. 저서에는 『송강가사』와 문집인 『송강집』이 있다.

37) 우한용 외, 『문학』 상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두산, 2002. (소단원-서정 세계의 감응과 표현)

<p>瀟湘南 南畔 반도 치오미 이러커든 玉樓 樓 高 處 처야 더욱 닐니 므스허리 陽 陽 春 春 을 부쳐 내어 님 겨신 덕 쏘이고져 茅 茅 簷 簷 비친 희를 玉 玉 樓 樓 의 울리고져 紅 紅 裳 裳 을 니미치고 翠 翠 袖 袖 를 반만 거더 日 日 暮 暮 脩 脩 竹 竹 의 행가림도 하도 할사 다른 희 수이 디어 긴 밤을 고초 안자 靑 靑 燈 燈 등 거른 것티 鈿 鈿 篋 篋 公 公 後 후 노하 두고 섬의나 님을 보려 턱 밧고 비겨시니 鶯 鶯 啭 啭 金 金 斗 斗 초도 출사 이 밤은 언제 셀고.</p> <p>흐르도 열두 새, 흥 들도 설흔 날 저근뎃 실각 마라 이 시를 닐자 하니 마음의 미쳐이서 骨 骨 髓 髓 의 켜터시니 扁 扁 鵲 鵲 이 열히 오다 이병을 엮디허리 어와 내 병이야 이 님의 타시로다. 출하리 석어디어 범나비 되오리라. 꽃나무 가지마다 간 덕 족속 안나다가, 향 드든 놀레로 님의 오시 울리리라.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내 님 조츼려 호노라</p> <p>출전 : 송강가사(松江歌辭) 이선본(李選本)</p>	<p>여 있을 때에, 사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날짐승의 날아감도 끊어져 있다. 소상강 남쪽 둔덕도 추위가 이와 같거늘, 하물며 북쪽 임 계신 곳이야 더욱 말해 무엇하랴? 따뜻한 불기운을 부쳐내어 내 임 계신 곳에 썩게 하고 싶다. 초가집 처마에 비친 따뜻한 햇볕을 임 계신 궁궐에 올리고 싶다. 붉은 치마를 여미어 입고 푸른 소매를 반쯤 걷어 올려 해는 저물었는데 미미하고 길게 자란 대나무에 기대어서 이것저 것 생각함이 많기도 많구나. 짧은 겨울 해가 이내 넘어가고 긴 밤을 곳곳이 앉아, 청사초롱을 걸어둔 옆에 자개로 수놓은 공후라는 악기를 놓아 두고, 꿈에서나 임을 보려고 턱을 바치고 기대어 있으니, 원앙새를 수놓은 이불이 차기도 차구나. 이 밤은 언제나 셀꼬?</p> <p>하루도 열두 때, 한 달도 서른 날, 잠시라도 임 생각을 말아 가지고 이 시름을 잊으려 하여도 마음속에 맺혀 있어 뺏속까지 사무쳤으니, 편작과 같은 명의가 열 명이 오더라도 이 병을 어떻게 하랴. 아, 내 병이야 이 임의 탓이로다. 차라리 사라져 범나비가 되리라. 꽃나무 가지마다 간 데 족족 앉고 다니다가 향기가 묻은 날개로 임의 옷에 옮으리라. 임께서 나인 줄 모르셔도 나는 임을 따르려 하노라.</p>
---	--

③ 핵심정리

- 갈래 : 양반 가사. 서정 가사
- 연대 : 선조18년-22년(1585-1589)
- 율격 : 3(4).4조의 4음보의 연속체
- 문체 : 운문체. 가사체
- 구성 : 서사-본사-결사의 3단 구성. 본사는 춘원(春怨) 하원(夏怨) 추원(秋怨) 동원(冬怨)으로 구성
- 성격 : 연군지사(戀君之詞). 서정적
- 주제 : 연군지정(戀君之情)
- 의의 : 「속미인곡」과 더불어 가사 문학의 극치를 이룬 작품. 고려속요 「정과정」의 맥을 잇는 연군지사

④ 이해와 감상

임금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천상에서 임을 모시다가 지상으로 내려온 선녀에 자신을 비유하여 노래한 이 작품은 우리말 구사가 뛰어나고 표현이 세련되어, 속편인 「속미인곡」과 함께 가사 문학의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고 있다.

서사에서는 광환전에서 하계로 내려온 여인의 모습에 자신의 처지를 비유해서 노래했고, 본사에서는 계절의 변화에 따른 임에 대한 그리움을 간절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계절의 변화 속에서 그 때마다 느끼는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노래한 고려 속요 「동동」의 표현 기법과 매우 닮아 있다. 결사에서는 죽어서 범나비가 되어서라도 임의 곁에 가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으로 임금을 향한 일편단심을 표현하였다.

임금을 연모하는 이 노래는 시적 화자의 목소리를 여성으로 택함으로써 더욱 절실하게 그려놓고 있다. 임금을 임으로 설정한 것은 멀리 고려 속요인 「정과정」과 맥을 같이하고 있으며, 우리 시가의 전통인 '부재(不在)하는 임에 대한 자기희생적 사랑'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가시리」와 「동동」 등에 이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국문으로 쓰여진 문학 작품이 경시되던 시대였음에도 이 작품은 「관동별곡」, 「속미인곡」과 더불어 역대 사대부들에게 큰 감명을 주어 홍만중과 김만중 등 여러 사람에게서 극찬을 받았다.

⑤ 문학사적 위치

「사미인곡」은 사용된 시어나 정경의 묘사 또한 비범한 것으로 높이 칭송되고 있다. 중국 초나라 굴원(屈原)의 「이소(離騷)」 제9장 '사미인(思美人)'을 모방하여 지었다고 하나 내용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한 구절의 인용도 없이 오히려 훨씬 뛰어난 표현 기교를 보여 줌으로써 그를 능가하는 작품이라 하겠다. 임금을 사모하는 연군의 정을 한 여인이 남편과 이별하고 연모하는 마음에 비겨서 노래하였다. 비유, 미화법, 변화법, 점층법 등 다양한 기법과 절묘한 언어가 구사되었으며, 자연의 변화에 맞추어 정서의 흐름을 표현하여 가사 작품 중에서도 그 문학성이 두드러진다. 후대에 이르러 이 작품을 본받아 동일한 주제와 내용을 가진 작품들이 나타났다. 정철의 「속미인곡」, 김춘택의 「별사미인곡」, 이진유의 「속사미인곡」, 양사언의 「미인별곡」 등으로써 모두 충군의 지극한 정을 읊은 것으로 정철의 작품을 모방한 것이다. 이를 통해서도 「사미인곡」의 가사로서의 우수성과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3) 「속미인곡(續美人曲)」 - 정철(鄭澈 1536-1593)

① 학습 지도상의 유의점³⁸⁾

- 첫째, 우리말 표현의 아름다움·구성의 묘미·'임'의 다의성 등에 주목하여 작품을 감상하도록 한다.
- 둘째, 작품을 감상할 때 우선 사랑하는 연인의 노래라고 간주하고 이해하고 감상한 다음에 창작 배경을 고려하여 그 실제적인 의미를 파악하도록 한다.
- 셋째, 「사미인곡」, 「규원가」 등의 여타 연정가·연군가들과도 비교해 보도록 한다.

② 작품 보기

<p>네 가는 더 각시 본 듯도 흥더이고. 텃天上上 빅 白 白 玉 玉 鏡 鏡 을 엮디허야 니離離別別하고, 희 다 더</p>	<p>저기 가는 저 각시(부인, 젊은 여자) 본 듯도 하구나. 임금이 계시는 대궐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가 다 저서 저문 날에</p>
--	---

38) 김윤식 외, 『문학』 하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다담출, 2002, (소년원-조선시대의 문학)

<p>저문 날의 눈을 보라 가시노고. 어와 네여이고 내 스설 드러 보오.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암 즉 흥가마는 엇디디 날 보시고 네로다 너기실시 나도 님을 미더 근쁘디 전혀 업서 이리야 교티야 어즈러이 구뎃원디 반기시노 늦비치 네와 엇디 다르신고. 누어 신각하고 니러 안자 헤여하니 내 몸의 지은 죄 뎃되타 빠혀시니 하늘하라 원망하 며 사들이라 허물하랴 설위 플터 헤니 造造物物 의 타시로다. 글란 실각 마오. 미친 일이 이서이다. 님을 피서 이서 님의 일을 내 알거니 를 그튼 얼굴이 편하 실 적 몇 날일고. 춘春寒寒 고苦苦熱熱은 엇디하야 디내시며 秋秋日日冬冬천은 뒤러서 뵈섯노고. 죽粥조부반飯 煮朝朝夕 뵈 네와 7티 세시노가. 기나긴 밤의 잠은 엇디 자시노고. 님 다히 소消 식息을 아므려나 아자 하니 오늘도 거긔로다. 너 일이나 사들 올가. 내 마음 둘 더 업다. 어드러로 가갓 말고. 잡거니 밀거니 놀픈 피히 올라가니 구름은카니와 안개는 므스일고. 산山川川이 어둡 거니 일日月을 엇디 보며 지咫咫尺을 모르거든 천千里를 보라보라. 출하리 물그의 가 비 길히 나 보자 하니 박람야야 물결이야 어동정 된더이고. 샹공은 어 뎃 가고 빈 빈만 걸렸느니. 강江天의 혼자 서 서 디는 희를 구버보니 님다히 소消식息이 더욱 아득흔더이고. 모茅蓍蓍 춘자리의 밤동만 도라오 니 반半벽壁청靑등燈은 늘 위하야 불갓노고. 오 락며 누리며 헤스며 바니니 저근뎃 力力盡盡하야 뜻증을 잠간 드니 精精誠誠이 지극하야 꿈의 님 을 보니 옥玉 그튼 얼굴이 반半이나마 늘거세라. 마음의 머근 말슴 슬극장 슬자 하니 눈물이 바라 나니 말인들 어이허며 정情을 못다하야 목이조차 메여하니 오던된 계鷄聲의 잠은 엇디 썩뎃던 고. 어와, 허虛스事로다. 이 님이 어뎃 간고. 곁의 니 러 안자 창窓을 열고 바라보니 어엿븐 그림제 날 조출 썩이로다. 출하리 석어디어 낙落월월이나 되어야서 님 겨신 창窓 안히 번드시 비쳐리라. 각시님 들이야카니와 구준 비나 되쇼셔. 출전 : 『송강가사』 성주본</p>	<p>누구를 만나러 가시노고? 아, 너로구나. 내 사정 이야기를 들어 보오. 내 몸(모습)과 이 나의 태도는 임께서 사랑함직 한가마는 어찌지(임께서) 나를 보시고 너로구나하고 여기서 기예(사랑하시기에) 나도 입을 밟아 판 생각이 전혀 없어 응 석과 아양을 부리며 지나치게 굴었던지 반기시는 얼굴빛이 옛날과 어찌 다르신고? 누워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 생각하 니(헤아려보니) 내 몸이 지은 죄가 산 같이 쌓였으니, 하늘 을 원망하며 사람을 탓하랴. 서러워서 여러 가지 일을 풀어 내어 헤아려 보니 조물주의 탓이로다. 그것을랑(그렇게는) 생각하지 마오. 마음속에 맺힌 일이 있 습니다. 예전에 입을 모시어서 임의 일을 내가 알거니, 물갈 이 연약한 몸이 편하실 때가 몇 날일까? 이른 봄날의 추위 와 여름철의 무더위는 어떻게 지내시며, 가을날 겨울날은 누 가 모셨노고? 자릿조반과 아침, 저녁 진지는 예전과 같이 잘 잡수시는가? 기나 긴 밤에 잠은 어떻게 주무시는가? 임 계 신 곳의 소식을 어떻게 해서라도 알리고 하니, 오늘도 거의 저물었구나. 내일이나 임의 소식 전해 줄 사람이 올까(있을 까)? 내 마음 둘 곳이 없다. 어디로 가자는 말인가? (나무 바 위 등을) 잠기도 하고 밀기도 하면서 높은 산에 올라가니, 구름은 물론이거니와 안개는 또 무슨 일로 이렇게 끼어 있 는고? 산천이 어두운데 해와 달은 어떻게 바라보며, 눈앞의 가까운 곳도 모르는데 천 리나 되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 으랴. 차라리 물가에 가서 뱃길이나 보려고 하니 바람과 물결로 어수선하게 되었구나. 뱃사공은 어디 가고 빈 배만 걸려있는고? 강가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임 계신 곳의 소식이 더욱 아득하구나. 초가집 찬 잠자리에 한 밤중이 돌아오니, 벽 가운데 걸려있는 등불은 누구를 위하여 밝게 켜져 있는가(밝은고)? 산을 오르내리며 (강가 여기저기 를) 헤매며 시름없이 오락가락하니 잠깐 사이에 힘이 다하여 (잠시 몸이 지쳐) 뜻을 잠깐 드니, 정성이 지극하여 꿈에 입을 보니 옥과 같이 곱던 모습이 반 넘어 늘었구나. 마음속 에 품은 생각을 실컷 아뢰려고 하였더니 눈물이 쏟아지니 말인들 어찌하며 정회도 다 못 풀어 목마져 메니 방정맞은 답소리에 잠은 어찌 깨버렸는가? 아 허황한 일이로다. 이 임이 어디 갔는가? 즉시 일어나 앉 아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보니, 가엾은 그림자만이 나를 따 르고 있을 뿐이로다. 차라리 사라져서(죽어서) 지는 달이나 되어 임이 계신 창문 안에 환하게 비치리라. 각시님, 달은커 녕 곳은 비나 되십시오.</p>
--	--

③ 핵심정리

- 갈래 : 서정 가사. 양반 가사. 정격 가사
- 연대 : 선조 18년-22년(1585-1589)
- 율격 : 3(4).4조 4음보
- 문체 : 운문체. 가사체
- 구성 : 서사, 본사, 결사의 3단 구성
- 성격 : 연군지사(戀君之詞)
- 주제 : 연군지정(戀君之情)
- 의의 : 「사미인곡」과 더불어 가사 문학의 극치를 이룬 작품이다. 우리말의 구사가 절묘하여 문학성이 높다. 대화 형식으로 된 최초의 작품이다.

④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사미인곡」의 속편으로 우리말 표현이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미인곡」과 달리 한자 속어와 전고[(典故, 전례(典例)와 고사(故事)]가 거의 들어 가 있지 않다. 또한, 이 작품은 시적 화자의 일방적인 독백으로 이끌어 간 것이 아니라, 보조적 인물을 설정하여 두 여인의 대화 형식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참신한 맛을 엿볼 수 있다. 화자가 상대방 여인의 물음에 답하는 형식으로 해서 자신의 사연을 풀어내고, 동등하게 묻고 답하기보다는 화자가 자신의 서러운 사연을 길게 토로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상대 여인은 아주 짧게 개입함으로써 단락을 전환시키고 또 매듭을 짓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사연은 사연대로 길게 풀고, 대화 상대자가 개입하여 위로하거나 공감을 표시함으로써 그 사연이 일방적인,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절실한, 객관적인 사연으로 드러나게 된다.

⑤ 전후미인곡 비교

사미인곡(思美人曲)	속미인곡(續美人曲)
독백체-화자의 일방적 독백	대화체-화자의 체험 대화
한자 속어, 전고(典故)(전례(典例)와 고사(故事)) →사치스러운 문체	우리말의 아름다운 구사 → 소박 · 진솔한 문체
임에게 정성을 다하는 화자	자신의 처지를 주로 말하는 화자
범나비-일방적	낙월-간접적, 원숙한 사랑

⑥ 두 화자의 성격

이 작품에 등장하는 두 여인은 송강의 분신이다. 따라서, 두 여인이 주고받는 하소연의 실상은 송강 자신의 내면 의식의 문학적 투사라고 할 수 있다.

갑녀(甲女)	을녀(乙女)
부분적 개입(질문, 위로) - 방관 · 동조	작품의 중심내용 - 하소연
작품 전개와 종결을 위한 기능적 역할	주제 구현의 중추적 역할
'곳은 비' - 눈물, 직접적	'낙월' - 사랑, 간접적
	자기 반성과 실의, 운명론적 체념
	임에 대한 순응적 · 모성애적 사랑과 임에 대한 회구
	임과의 거리감 → 산, 뱃길 → 꿈 → 죽음으로서의 초월(낙월)

⑦ 화자 설정과 그 효과

이 작품은 흔히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는 노래, 즉 충신연주지사(忠臣戀主之詞)라고 한다. 작가인 정철은 당쟁으로 인해 관직에서 밀려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왕에 대한 자신의 충정을

이런 방식으로 하소연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왕과 자신의 관계를 직접 표출하지 않고 임의 사랑의 받지 못한 여인의 애절한 심정을 절실하게 하소연하는 방식으로 표현함으로써 공감을 얻고 있다. 즉, 자신의 특수한 사연을 일반적으로 일어난 수 있는 일로 전환하여 표현함으로써 폭넓은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이 작품처럼 남성이 자신의 사연을 토로할 때 여성의 목소리나 심정·시각으로 노래하는 것은 우리 문학의 전통적인 특징 중의 하나이다. 이는 정서의 「정과정」이나 김소월, 한용운의 시에서도 엿볼 수 있다.

4) 「규원가(閨怨歌)」 - 허난설현(許蘭雪軒 1563-1589)³⁹⁾

① 학습 지도상의 유의점⁴⁰⁾

첫째, 작품 자체의 주제인 규방 여인의 심리와 표현의 공식성 및 나열적 속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가사의 소통 방식인 가창과 당대 문학 공동체를 통한 향유를 작품의 소통 맥락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작품 보기

<p>엇그제 저멋더니 허마 어이 다 늘거니. 少年行樂(소년행락) 생각하니 일러도 속절없다. 늘거야 서른 말슴 허자니 목이 맨다. 父生母育(부생모육) 辛辛苦고 허야 이 내 몸 길러 낼 제, 公公候幸配배 필은 못 바라도 君君子자好호逮구 願(원)허더니, 三生(삼생)의 慇懃業업이오 月下(월하)의 緣연分분으로 長장安안遊유依협 경박자(輕薄子)를 꿈근치 만나 當時(당시)의 用心(용심)허기 살어름 디디는 듯, 三五(삼오) 二八(이팔) 겨오 지나 天然麗質(천연여질) 절로 이니, 이 얼굴 이 態度(태도)로 百年期約(백년기약)허앗더니, 年光(연광)이 훌훌하고 造物(조물)이 多다猜시 허야, 봄바람 가을 물이 晝오리 북 지나듯, 雪雪鬢인화화顏안 어디 두고 面目可憎(면목가증)되거고나. 내 얼굴 내 보거니 어느 입이 날 꿔소냐. 스스로 慚慚愧愧허니 누구를 怨怨望望허리.</p> <p>三三五五(삼삼오오) 治야遊遊園원의 새 사람이 나 단 말가. 꽃 피고 날 저물 제 定處(정처) 업시 나가 있어, 白馬(백마) 金銀鞭편으로 어디어디 머무는고. 遠近(원근)을 모르거니 消息(소식)이야 더욱 알라. 因緣(인연)을 闕쳐신들 思量이야 업슬소냐.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림기나 마르려문. 열두 새 김도 길사 설흔 날 支離(지리)허다. 玉窓(옥창)에 심고 梅花(매화) 몇 번이나 띄어 진고. 겨울 밤 차고 찬 제 자최는 셋거 치고, 여름날 길고 길 제 구근 비는 무스 일고. 三春花柳(삼춘화류) 好時節(호시절)에 景物(경물)이 시름업다. 가을 들 방에 들고 蟋蟀蟀이 床(상)에 올 제, 긴 한숨 디는 눈물 속 절업시 행만 만다.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사.</p> <p>도로혀 풀져 헤니 이리 허어 어이 허리. 靑燈(청등)을 돌라 노코 綠 녹綺綺靨긔 빗기 안아, 碧芭蓮蓮花화 한 곡조를 시름 조조 셋거 타니, 瀟湘湘상 夜야雨우의 澗水시 澗도는 澗, 華華(화표) 千年(천년)의 別鶴(별학)이 우니는 澗, 玉手(옥수)의 타는 手段(수단) 몇 소리 잇다마는, 美부蓉蓉帳帳 寂寞(적막)허니 뒤 귀에 들리소니. 肝肝腸腸이 九曲(구곡) 되야 구궤구궤 썩쳐서라.</p> <p>출하리 잠을 드러 꿈의나 보려 허니, 바람의 디는 냇과 풀 속에 우는 증생, 무스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오는다. 天上(천상)의 牽牛牛우織織女녀 銀河水(은하수) 막혀서도, 七月 七夕(칠월 칠석) 一年一度(일년일도) 失期(실기)치 아니거든, 우리 남가신 후는 무스 弱水(약수) 가련판디, 오거나 가거나 消息(소식)조차 쓰치는고. 欄欄干干的 비져 서서 너 남가신 뒤 바라보니, 草露(초로)는 맺쳐 있고 暮모雲운이 지나갈 제, 竹林(죽림) 푸른 고디 세 소리 더욱 설다. 세상의 서론 사람이 수업다 허려니와, 薄박命명紅紅顏(홍안)이야 날 가터니 쏘 이실가. 아마도 이 님의 지위로 살동말동 허어라.</p> <p>출절 : 「고금가곡(古今歌曲)」</p>	<p>엇그제 젊었더니 어찌 벌써 이렇게 다 늙어 버렸는가? 어릴 적 즐겁게 지내던 일을 생각하니 말해야 헛되구나. 이렇게 늙은 뒤에 설은 사연 말하자니 목이 맨다. 부모님이 낳아 기르며 몹시 고생하여 이 내 몸 길러낼 때, 높은 벼슬아치의 배필을 바라지 못할지라도 군자의 좋은 짝이 되기를 바랐었는데(바랬더니), 전생에 지은 원망스러운 업보(業報)요 부부의 인연으로 장안의 호탕하면서도(장안의 놀기 좋아하는) 경박한 사람을 꿈같이 만나, 시간간 뒤에 남편 시중하면서 조심하기를 마치 살얼음 디디는 듯하였다. 열다섯 열여섯 살을 겨우 지나 타고난 아름다운 모습 저절로 나타나니, 이 얼굴 이 태도로 평생을 약속하였더니, 세월이 빨리 지나고 조물주마저 시기하여 봄바람 가을 물(곧 세월)이 베들의 베을 사이에 북이 지나가듯 빨리 지나가 버려같이 아름다운 얼굴 어디 두고 모습이 밍게도 되었구나. 내 얼굴을 내가 보고 알거니와 어느 입이 나를 사랑할 것인가? 스스로 부끄러워 하니 누구를 원망할 것인가</p> <p>여러 사람이 떼를 지어 다니는 술집에 새 기생이 나타났다는 말인가? 꽃 피고 날 저물 때 정처 없이 나가서 호사로운 행장을 하고 어디어디 머물러 노는고? (집안에만 있어서)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 모르는 데, (임의) 소식이야 더욱 알 수 있으랴. (결론으로) 인연을 끊었지마는 (임에 대한) 생각이야 없을 것인가? 임의 얼굴을 못 보거니 그림기나 말았으면 좋으련만, 하루가 길기도 길구나. 한 달 (곧 서른 날)이 지루하기만 하다. 규방 앞에 심은 매화 몇 번이나 피었다 켜는고? 겨울밤 차고 찬 때 자국 눈 섞어 내리고, 여름날 길고 긴 때 굶은비는 무슨 일인가? (봄 세 달 동안의 꽃과 버드나무) 봄날 온갖 꽃 피고 버들잎이 돌아나는 좋은 시절에 아름다운 경치를 보아도 아무 생각이 없다 가을 달이 방에 들이비추고 귀뚜라미 침상에서 올 때 긴 한숨 흘리는 눈물, 헛되이 생각만 많다.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렵구나</p> <p>돌이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니 이렇게 살아서 어찌할 것인가? 청사초롱을 둘러놓고 거문고를 비스듬히 앉고서 벽련화 한곡을 시름에 잠겨 타니(연주하니), 소상강 밤비에 맺일 소리가 섞여 들리는 듯(소상강 밤비가 대나무잎 소리와 함께 들리는 듯), 망주석에 천년 만에 찾아온 특별한 학이 울고 있는 듯하고, 고운(아름다운) 손으로 타는 솜씨는 옛 가락이 아직 남아 있지만(옛날과 다름없지만) 연꽃무늬가 있는 휘장을 친 방안에 텅 비어 있으니 누구의 귀에 들리겠는가? 마음 속이 끊이 끊이 끊어졌도다.(구곡간장이 끊어지는 듯 슬프다.) 차라리 잠이 들어 꿈에나 (임을) 보려 하니 바람에 떨어지는 나뭇잎과 풀 속에서 우는 짐승(벌레)은 무슨 원수가 저서 잠마저 깨우는고? 하늘의 견우성과 직녀성은 은하수가 막혔을 지라도 칠월 칠석에 매 년에 한 번씩은 때를 놓치지(어거지) 않고 만나는데, 우리 임 가신 뒤에는 무슨 건너지 못할 강(장애물)이 놓여 있기에(가리었기에) 오고 가는 소식마저 끊어졌는가(그쳤는고)? 난간에 기대어 서서 임 가신 곳을 바라보니, 풀에 이슬은 맺쳐 있고 저녁 구름이 지나갈 때, 대나무 숲 우거진 곳에 새 소리가 더욱 서럽게 들린다. 세상에 서러운 사람이 수없이 많다고 하지만, 기구한 운명을 가진 여자 신세야 나 같은 이가 또 있을까? 아마도 이 입의 탓으로 살듯 말듯 허구나</p>
---	---

③ 핵심정리

- 갈래 : 내방 가사(규방 가사)
- 연대 : 선조 때로 추정
- 율격 : 3.4조 4음보
- 문체 : 운문체. 가사체
- 구성 : 기-승-전-결의 4단 구성
- 내용 : 조선조의 봉건적 남존여비 사상 속에서 눈물과 한숨으로 얼룩진 인고(忍苦)의 삶을 살았던 부녀자들의 애달픈 심정을 노래하였다.
- 성격 : ‘원부사(怨夫詞)’, ‘원부사(怨婦詞)’라고도 한다.
- 주제 : 봉건 제도하에서의 부녀자의 한(恨)
- 의의 : 규방 가사의 선구자적인 작품. 현전하는 최초의 여류 가사

39) 명중-선조 때의 여류 시인. 본명은 초희(楚姬). 난설현(蘭雪軒)은 호 허균의 누이. 여성적인 섬세한 감각의 애정시를 많이 지었다. 허난설현은 황진이(黃眞伊)와 대조되는 시인이며 시집으로 『난설현집(蘭雪軒集)』이 전하며, 「규원가」 외에 「봉선화가(鳳仙花歌)」도 그의 작품이라는 설이 있다.

40) 김윤식 외, 『문학』 하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디딤돌, 2002, (소년원-문학의 소통)

· 규방 가사 : 조선조 양반 부녀자들이 주로 향유하였던 장르로서 봉건 제도하의 속박된 여성 생활의 고민과 정서를 호소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 신분상 양반 문학이지만 내용적으로 평민 가사와 근접한 것이 많다. 규방 가사 중에서 남성의 작품을 여성이 옮겨 베껴서 애독하는 것도 있었으며 개화기를 거쳐 일제하에서도 활발하게 창작되었다.

④ 이해와 감상

유교 사회에서 여성들의 남존여비, 여필종부하는 규범 속에서 인종의 나날을 보내야 했다. 이러한 처지의 여인이 자신의 한스러운 생활과 괴로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절절하게 노래한 작품이다. 이 작품을 통해 그 당시 눈물 속에 인생을 보낸 조선 여인의 삶을 볼 수 있다. 섬세하고 애절한 그리움과 슬픔으로 표출하면서도 봉건 제도 아래에서 인종만 해야 하는 여인의 원망스런 한과 체념하는 모습을 잘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면서도 온화하고 품격을 잃지 않는 우아한 시풍은 작품의 시적 감각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⑤ 이 작품의 구조 및 작품에 드러난 삶

이 작품은 제목에서 의미하는 것과 같이 조선조 봉건 사회에서 여성이 겪는 외로움과 고달픔을 절절하게 읊었다. 자신의 심정과 처지를 있는 그대로 표현한 작품의 내용을 통해 당시 여성의 정서와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작 품 의 구 조	작품에 드러난 삶
기 : 과거 회상과 현재 자신의 모습 - 장안 유희 경박자를 만나 혼인함 - 살얼음 디디는 듯 불안했던 결혼 생활 - 세월이 지나 늙은 신세가 됨	⇒
승 : 임에 대한 원망과 자신의 애달픈 심정 - 남편의 외도(外道)와 무소식 - 한숨과 눈물로 보내는 외로운 처지	
전 : 외로움을 거문고로 달래는 심정 - 새 힘을 내어 외로움을 잊으려 하나 슬픔만 깊어짐	
결 : 임을 기다리며 기구한 운명을 한탄함 - 기다림, 설움, 한탄의 심회	
- 훌륭한 남자의 좋은 짝이 되기를 소망하였으나 경박하고 호탕한 남편을 만나 가슴을 졸이며 삶 - 무상한 세월의 흐름에 따라 늙어 버린 자신의 모습 - 술집과 기생을 찾아 나돌아 다니는 남편 - 거문고로 시름을 달래 보려 하지만 구곡간장이 끊어짐 - 임 때문에 속태우는 고통	

5) 「누항사(陋巷詞)」⁴¹⁾ - 박인로(朴仁老 1561-1642)⁴²⁾

① 작품 보기

<p>어리고 우랄(迂謔)홍산 이 너 우허 더니 업다. 길흥 화북(吉興福)을 하날기 부쳐 두고 누항(陋巷) 김뿐 곳의 초막(草籬)을 지어 두고 풍조우석(風朝雨夕)에 석은 덩히 셉히 되야 서 흙 밭 닷 흙 죽(菊)에 연기(煙氣)도 하도 할사. 설 데인 숙냉(熟冷)에 빈 배 책일 뿐이로다. 생애 이러허다 장부(丈夫) 뜻을 옮길년가. 안빈 일념(安貧一念)을 적을망정 품고 이서 수의(隨宜)로 살려 허니 날로 조차 저어(齟齬)허다. 7올허 부족(不足)거든 봄이라 유여(有餘)허며 주머니 뷔엇거든 병(瓶)의라 담겨서라. 빈근(貧根)호 인생(人生)이 천지간(天地間)의 나뿐이로다. 기한(飢寒)이 절신(切身)허다 일단심(一心)을 이질는가. 분의 망신(奮寤忘身)허야 죽어야 말녀 너져 우탁 우량(于秦于襄)의 줌음이 모아 녀코 병과(兵戈) 오재(五載)에 감사심(敢死心)을 가져 이서 이시섭혈(履尸涉血)허야 몇 백전(百戰)을 지니연고. 일신(一身)이 여가(餘暇) 잇사 일가(一家)를 도라보라. 일노장수(一老長壽)는 노주분(奴主分)을 이엇거든 고여춘금(告老春及)을 어니 사이 십각허리. 경당문노(耕堂門奴)인들 놀드려 물들노고. 궁경가색(躬耕稼穡)이 너 분(分)인 줄 알리로다. 신야경수(莘野耕叟)와 농상경용(隴上耕翁)을 천(天)타 허리 업것마는 아쁘려 갈고전들 어니 소로 갈로손고 한기태심(旱既太甚)허야 시절(時節)이 다 느근 제 서주(西疇) 높흔 눈에 잠깐 긴 벌비예 도상(道上) 무원수(無源水)를 반만만 덕혀두고 쇼 현 격 무마 호고 엄성이 허는 말삼 친절(親切)호라 너진 집의 들 업은 황혼(黃昏)의 허위허위 다라 가서 구디 다든 문(門) 밧기 어득히 혼자 서서 큰 기춤 아합이를 양구(良久)토록 호은 후(後)에 어와 괴 뉘시고 염치(慚耻) 업산 낙음노라. 초경(初更)도 거던되 괴 잊지와 겨신고 연년(年年)에 이러허기 구차(苟且)호 줄 알건마는 쇼 업산 궁가(窮家)에 혜염 만하 왓삽노라. 공허하나 갑사나 주임 죽도 허다마는 다만 어계 밤의 거넌 집 저 사름이 목 불근 수기치(難)을 옥저음(玉璫)계 쪼어 너고 간 이근 삼해주(三盃酒)를 취(勸)토록 권(勸)허거든</p>	<p>어리석고 세상 물정에 어둡기로는 이 나보다 다한 사람이 없다. 모든 운수를 하늘에다 맡겨 두고 누추한 깊은 곳에 초가를 지어 놓고 고르지 못한 날씨에 썩은 짚이 땀같이 되어 세 흙 밭에 다섯 흙 죽(초라한 음식)을 만드는 데 연기가 많기도 허구나. 털 대운 송늬를 고른 배를 속일 뿐이로다. 살림살이가 이렇게 구차하다고 한들 대장부의 뜻을 바꿀 것인가. 안빈낙도하겠다는 한 가지 생각을 적을망정 품고 있어서 옳은 일을 좇아 살려 하니 날이 갈수록 뜻대로 되지 않는다. 가을이 부족한데 봄이라고 여유가 있었으며 주머니가 비었는데 술병에 술이 담겨 있으랴. 가난한 인생이 천지간에 나뿐이로다. 배고픔과 추위가 몸을 괴롭힌다 한들 일편단심을 잊을 것인가. 의에 분발하여 내 몸을 잊어서 죽어야야 말겠노라고 마음 먹어 전대와 망태에 한 줌 한 줌 모아 넣고 전란 5년 동안에 죽고 말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주검을 밟고 피를 건너 몇 백 전쟁을 치루었던가. 한 몸이 겨름이 있어서 집안을 돌보겠는가 늙은 좋은 하인과 주인의 분수를 잊어버렸는데 나에게 봄이 왔다고 일러 줄 것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는가. 밭 가는 일은 마땅히 종에게 맡겨야 한다지만 누구에게 물을 것 인가. 몹소 농사를 짓는 것이 내 분수에 맞는 줄을 알겠도다. 들에서 밭 갈던 은나라의 이운과 진나라의 진승을 천하다고 할 사람이 없지마는 아무리 갈려고 한들 어느 소로 갈겠는가. 가뭄이 몹시 심하여 농사철이 다 닳은 때에 서쪽 두둑 높은 눈에 잠깐 갠 지나가는 비에 길 위에 흐르는 물을 반쯤 대어 놓고는 소 한 번 빌려 주마 하고 엉성하게 하는 말(또는 탐탁지 않게 하 는 말)을 듣고 친절하다고 여긴 집에 달이 없는 저녁에(달도 없는 황혼에) 허우적허우적(허둥지둥) 달 려가서 굳게 닫은 문 밖에 우두커니(멀찍이) 혼자 서서 ‘에헬’ 하는 인기척을 꽤 오래도록 한 후에 ‘어, 거기 누구신가?’ 묻기에 ‘염치없는 저울시다’ ‘초경도 거의 지났는데 그대 무슨 일로 와 계신가?’ ‘해마다 이러기가 구차한 줄 알지마는 소 없는 가난한 집에서 걱정이 많아 왔소이다.’ ‘공것이거나 값을 치거나 간에 주었으면 좋겠지만</p>
--	--

41) 「누항(陋巷)」이란 『논어』에 나오는 말로, 가난한 삶 가운데에 학문을 닦으며 도를 추구하는 즐거움을 즐기는 공간을 말할 때 자주 사용된다.

42) 조선 시대 무신. 호는 노계(蘆溪). 또는 무허옹(無何翁). 임진왜란 때에는 수군에 종군하였고, 39세 때 무과에 급제하여 수군만호에 이르렀으나, 후에 벼슬을 사직하고 독서와 시작(詩作)에 전념하였다. 그의 작품에는 안빈낙도하는 도학사상, 우국지정이 넘치는 충효 사상, 산수 명승을 즐기는 자연에 사상 등이 잘 나타나 있다. 송강과 함께 가사 문학의 양대 산맥으로 일컬어지며, 가사 7편과 「오륜가」 등 시조 72수가 『노계집(蘆溪集)』에 전한다.

이러한 은혜(恩惠)를 어이 아니 감흥되고
 내일(來日)로 주마 하고 큰 언약(言約) 허약거든
 실약(失約)이 미편(未便)하니 사설이 어려려라.
 실위(實爲) 그러하면 험마 어이홀고
 현 먼덕 수기 스고 축 업스 집신에 설괴설괴 물너 오니
 풍채(風采) 저근 형용(形容)에 기 즈칠 뿐이로다.
 와실(蝸室)에 드러간들 잠이 와서 누어시라.
 북창(北窓)을 비겨 안자 식베를 기다리니
 무정(無情)한 대승(戴勝)은 이니 한(恨)을 도우느다.
 종조(終朝) 추창(惆悵)하야 먼 들흘 바라보니
 즐기는 농가(農歌)도 흥(興) 업시 들리느다.
 세정(世情) 모른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르느다.
 아까운 저 소쉬는 뱃보임도 도홀세고
 가시 영긴 목은 밧도 용이(容易)케 갈려마는
 허당 반벽(虛堂半壁)에 슬디업시 걸려고야.
 춘경(春耕)도 거의거다 후리쳐 터더 두자.
 강호(江湖) 호 쉼을 꾸언지도 오리리니
 구복(口腹)이 위루(爲累)하야 어지버 이저쩌다.
 침피가옥(簷彼其巖)흔디 녹죽(綠竹)도 하도 할사.
 유바군자(有斐君子)들이 닦디 하나 빌려스라.
 노화(蘆花) 김곤 곳에 명월 정풍(明月淸風) 벗이 되어
 남적 업스 풍월강산(風月江山)에 절로절로 늘그리라.
 무심(無心)한 백구(白鷗)야 오라 허며 말라 허라.
 다토리 업스스 다문 인가 너기로라.
 무상(無狀)한 이 몸에 무슨 지취(志趣) 이스리마는,
 두세 이랑 빛논를 다 무겨 터더 두고
 이시면 죽(粥)이오 업시면 굴뚝망경.
 남의 집 남의 거스 전혀 부러 말렸사라.
 너 빈천(貧賤) 슬허 너저 손을 헤다 물너가며,
 남의 부귀(富貴) 불리 너저 손을 치다 나아오라.
 인간(人間) 어니 일이 명(命) 밧기 삼겨시리.
 빈이무원(貧而無怨)을 어렵다 허건마는
 너 생애(生涯) 이러호되 설은 뜻은 업노왜라.
 단사표음(單食瓢飲)을 이도 죽(足)히 너기로라.
 평생(平生) 호 뜻이 온포(溫飽)에는 업노왜라.
 태평천하(太平天下)에 충효(忠孝)를 일을 삼아
 화형제(和兄弟) 신봉우(信朋友) 외다 허리 뉘 이시리.
 그 밧기 남은 일이야 삼긴 디로 살렸노라.
 출전 : 『노계집(蘆溪集)』

다만 어젯밤에 건넛집 사는 사람이
 목이 붉은 수평을 구슬 같은 기름에 구어 내고
 갓 익은 좋은 술을 취하도록 권하였는데
 이러한 고마움(은혜)을 어떻게 갚지 않았는가(어찌 아니 갚겠는가)?
 내일 소를 빌려 주마 하고 굳게 약속을 하였기에
 약속을 어기기가 편하지 못하니 말씀하기가 어렵구료'
 정말로(사실) 그렇다면 설마 어찌하겠는가
 현 모자를 숙여 쓰고 축 없는 짚신을 신고
 맥없이 물러나오니
 풍채 적은 내 모습에 개가 짖을 뿐이로구나.
 작고 누추한 집에 들어간들 잠이 와서 누워 있겠는가.
 북쪽 창문에 기대 앉아 새벽을 기다리니
 무정한 오디새는 나의 한을 돕는구나.
 아침이 끝날 때까지 슬퍼하며 먼 들을 바라보니
 즐기는 농부들의 노래도 흥겹게 들리는구나.
 세상 물정을 모르는 한숨은 그칠 줄 모르다.
 아까운 저 쟁기는 뱃보임도 좋구나.
 가시가 영긴 목은 밧도 쉽게 갈 수 있으면만
 빈 집 벽 한가운데 쓸데없이 걸려 있구나.
 봄갈이도 거의 다 지났다. 팽개쳐 던져 버리자.
 자연을 벗삼아 살겠다는 한 꿈을 끈 지도 오래더니
 먹고 사는 것이 누가 되어야, 슬프게도 다 있었도다.
 저 냇가를 바라보니 푸른 대나무가 많기도 하구나.
 교양 있는 선비들이, 낚시대 하나 빌려 다오(빌려라).
 갈대꽃 깊은 곳에서 맑은 달과 맑은 바람의 벗이 되어
 입자 없는 자연 속에서 절로절로(근심 없이) 늙으리라.
 무심한 갈매기야, 나더러 오라고 하며 가라고 하라(나더러 오라고 하며 말라고 하겠느냐)?
 다름 이가 없는 것은 다만 이것뿐인가 생각하노라.
 못생긴 이 몸(보잘것없는 이 몸)이 무슨 소원이 있으리오마는
 두세 이랑 되는 밭과 논을 다 묵혀 던져두고
 있으면 죽이오 없으면 굶을망정.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부러워하지 않겠노라.
 나의 빈천을 슬개 여겨 손을 헤친다고(짓는다고) 물러가며
 남의 부귀를 부럽게 여겨 손짓한다고 나아오라?
 인간 세상의 어느 일이 운명 밖에 생겼겠느냐?
 가난하면서도 원망하지 않음이 어렵다고 하건마는
 내 생활이 이러하되 서러운 뜻은 없노라.
 한 대 광주리의 밥을 먹고 한 표주박의 물을 마시는
 어려운 생활을 이것도 만족하게 여기노라.
 평생의 한 뜻이 따듯이 입고 배불리 먹는 데는 없노라.
 태평스런 세상에 충성과 효도를 일을 삼아,
 형제간에 화목하고 벗끼리 신의 있게 사귀는 일을 그르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 밖의 나머지 일이야 태어난 대로 살아가려 하노라.

② 핵심정리

- 갈래 : 가사. 은일(隱逸)가사
- 연대 : 광해군 3년(1611)
- 율격 : 3(4).4조 4음보 연속체
- 문체 : 가사체. 운문체
- 성격 : 한정가(閑情歌)
- 구성 : 7단락으로 나눌 경우 → 아래 '단락 연구' 참고
 - ① 안빈(安貧)의 신념과 생활의 곤궁함
 - ② 임진왜란에 참전
 - ③ 전란 후에 돌아와 농사를 짓게 됨
 - ④ 밭갈이 할 소가 없어 실망과 좌절을 겪음
 - ⑤ 잠을 이루고 괴로워함
 - ⑥ 강호(江湖)에의 꿈을 되새김
 - ⑦ 빈한한 처지를 받아들여 안빈낙도하고자 함
- 4단락으로 나눌 경우 → 7단락의 ①~⑦을 참고
 - (가) 총론적 서사(序詞) : ①
 - (나) 위국 일념(爲國一念) : ②
 - (다) 빈곤으로 인한 고통과 변민 : ③④⑤
 - (라) 안빈낙도의 불가피한 선택 : ⑥⑦
- 표현 : 대구법, 설의법, 과장법, 열거법
- 제재 : 빈이무원(貧而無怨)의 삶
- 주제 : 누항(陋巷)에 묻혀 빈이무원(貧而無怨)을 추구. 산림에 묻혀 사는 선비들의 고절한 삶과 현실의 부조화

③ 이해와 감상

이 노래는 이덕형(李德馨)이 찾아와 누항(陋巷) 생활의 어려움을 묻자 박인로가 이에 대한 답으로 지은 작품이다. 박인로의 누항은 세속의 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곳이고, 밥을 끓이고 매운 연기를 말아야 하는 곳이다. 이처럼 누항 깊은 곳에 초막을 지어 가난한 생활을 할 때에 추위와 배고픔으로 인한 어려움과 수치스러움은 크지만 그대로 누항에 묻혀 자연을 벗삼아서 빈이무원(貧而無怨)하고 충효(忠孝)와 형제간의 우애, 친구 간의 신의를 저버리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노래는 자연에 묻혀 사는 생활을 읊고 있다는 점에서는 조선 전기의 가사를 계승했다고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임진왜란 후의 어려운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렸다는 점에서는 조선 후기 장편 가사들의 출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작품은 표현면에서 지금까지 가사에서는 쓰이지 않았던 일상 생활어를 구사하여 작품에 생동감과 구체성을 부여하는 탁월함을 보임으로써 후기 가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선구적 역할을 하였다.

조선 전기의 가사가 주로 양반층에 의해 창작되었고 강호시가(江湖詩歌)의 범주에 드는 작품들이 많으며 전반적으로 서정적인 경향이 강했던 것에 비해 조선 후기 가사는 작자층이 다양화되면서 작품 경향이 여러 방향으로 분화되고, 생활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리는 작품들이 많아지는 변화가 나타났다. 이 작품은 바로 이와 같은 변화의 흐름을 뚜렷하게 보여 준다는 점에서 문학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④ 고상한 삶의 목표와 현실적인 문제 사이의 갈등

이 작품 속에는 가난한 삶 속에서도 만족함을 알고 안빈낙도(安貧樂道)하려는 결심과 그러한 결심을 흔들리게 하는 각종 현실적 상황들이 묘사되어 있다. 먼저 임진왜란이라는 외환이 참전을 부추기고, 날이 갈수록 곤궁해지는 생활이 자연을 즐기려는 마음의 여유를 빼앗아 버린다. 거기에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인한 이웃들의 멸시는 그나마 가난함에 만족하며 살려는 시적 화자의 삶의 자세를 위협하게 된다.

6)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 - 정학유(丁學游, 1786-1855)⁴³⁾

① 학습 지도상의 유의점⁴⁴⁾

첫째, 이 작품은 조선 시대 농촌 공동체에서 농민들이 계절의 변화에 따라 할 일을 노래로 읊은 것이어서, 현대 산업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쉽게 공감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다. 자구(字句) 해석에 지나치게 얽매기보다는 조상들의 삶의 방식을 어렵듯하게나마 상상해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 작품이 당대 사회에서 공동체 통합의 기능을 훌륭히 수행하였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개인의 삶의 질을 고양시키는 기능도 수행할 수 있음을 교수·학습 과정에서 언급함으로써, 학생들이 특정 작품이 특정 기능만 수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도록 유도한다.

셋째, 사회의 변화에 따라 이 작품이 수행했던 문학의 기능도 달라졌다는 점도 이해하게 함으로써 문학의 기능과 가치도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알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② 작품 보기

팔월령(八月令)	
<p>팔월이라 증추(仲秋) 되니 칩노(蟄蟲) 휴분 결기로다. 북두성(北斗星) 즈로 도라 서편(西便)을 가르치니 선선호 조석 기운 추의(秋意)가 완연한다. 귀뚜라미 말곤 소리 벽간(壁間)에 들거고나. 아침의 안기 끼고 밤이면 이슬 내려 칩곡(百穀)을 성실하고 만물을 지축하니 들 구경 들나보니 험드린 날 공잉(共生)한다. 칩곡(百穀)의 이삭 찢고 여물 들어 고기 숙여 서풍(西風)의 익는 빛은 황운(黃雲)이 이러난다.</p>	<p>팔월이라 증추가 되니 백로 추분이 있는 절기로다. 국자같이 생긴 북두칠성의 자루가 돌아 서쪽을 가리키니 서늘한 아침저녁 기운은 가을의 기분이 완연하다. 귀뚜라미 맑은 소리가 벽 사이에서 들리는구나. 아침에 안개가 끼고 밤이면 이슬이 내려 온갖 곡식을 여물게 하고 만물의 결실을 재촉하니 들 구경을 돌아보니 힘들어 일한 공이 나타나는구나. 온갖 곡식의 이삭이 나오고 여물이 들어 고개를 숙여 서풍에 익는 빛은 누런 구름이 이는 듯하다.</p>
<p> 칩설 갖흔 면화송이 산호 갖흔 고초다리 첨이의 너러시니 가을 벗 명당한다. 안팎 마당 닦가 노코 밭치 땅구 장만호소 면화 짜는 다락기의 수수 이삭, 풍가지오 나무꾼 도라오니 머루 다리 산과(山果)로다. 뒤동산 밤 대추는 아릿들 세상이라. 아름 모아 말니여라. 철 대야 뜨게 호소.</p>	<p>눈같이 흰 목화송이와 산호같이 아름다운 고추 열매 지붕에 널었으니 가을벌이 맑고 밝다. 안팎의 마당을 닦아 놓고 밭채와 땅구를 마련하소. 목화 따는 다래끼에 수수 이삭과 풍가지도 담고 나무꾼 돌아올 때 머루 다래와 같은 산과도 따오리라. 뒷동산의 밤과 대추에 아이들은 신이 난다. 알밤을 모아 말려서 필요한 때에 쓸 수 있게 하소.</p>
<p>명지를 쓴혀 내어 추양(秋陽)에 마절하고 쪽 더리고 잇 더리니 청홍(靑紅)이 식쇠이라 부모님 연만(年晩)하니 슈의(壽儀)를 유의하고 그 남아 마루직야 자녀의 혼수(婚壽)호세</p>	<p>명주를 끓여 내어 가을벌에 표백하고 남빛과 빨강으로 물을 드리니 청홍이 색색이로구나. 부모님 연세가 많으니 수의를 미리 준비하고 그 나머지는 마르고 재어서 자녀의 혼수하세.</p>
<p>집 우희 곳은 박은 요긴호 가령(罍皿)이라. 딛스리 뷔를 띠야 마당질외 썩으리라. 참키 들키 거둔 후의 죽(中)오려 타작하고 담비 줄 녹두 말을 아쇠야 작전(作錢)호라. 장 구경도 허러니와 흥정할 것 잊지 마쇼 북어께 젓조기를 추쳐 명일 쇠아 보세. 신도쥬(新稻酒) 오려송편 박나물 토란국을 선산(先山)의 계물호고 이웃집 눈화 먹시.</p>	<p>지붕 위의 박은 긴요한 그릇이라. 대싸리로 비를 만들어 타작할 때 쓰리라. 참깨 들깨를 수확한 후에 다소 이른 비를 타작하고 담배나 녹두 등을 팔아서 아쉬운 대로 돈을 만들어라. 장 구경도 허러니와 흥정할 것 잊지 마쇼. 북어께와 젓조기를 사다가 추석 명절을 쇠어 보세. 햅쌀로 만든 술과 송편 박나물과 토란국을 조상께 제사를 지내고 이웃집이 서로 나누어 먹세.</p>
<p>머느리 말미 바다 본짐에 근친(親隣) 갈 제 기 잠이 살아 건너 책고리와 술병이라. 초록 장옷 반물 치마 장속하고 다시 보니 여름지에 지친 얼굴 소복(蘇服)이 되얏느냐. 증추야(仲秋夜) 붉은 달에 지기(志氣) 펴고 놓고 호소.</p>	<p>머느리가 휴가를 얻어 친정에 근친 갈 때에 개를 잡아 삶아 건지고 떡고리와 술병을 함께 보낸다. 초록색 장옷과 남빛 치마로 몸을 꾸미고 다시 보니 농사짓기에 지친 얼굴 이 원기가 회복되었느냐. 추석날 밝은 달 아래 기를 펴고 놀다 호소.</p>
<p>금년 홀 일 못 다하나 명년(明年) 계교(計較) 호으리라. 밀직 뷔어 더운가리 모뎌(牟麥)를 추경(秋耕)호시. 쫓쫓지 못 너어도 금년 대로 짓고 갈쇼 인공(人功)만 그려홀가 면시(麥時)도 이려하니. 반각(半畝)도 설 썩 업시 맛쯔며 시작느냐.</p>	<p>금년에 할 일은 다 못했지만 내년 계획을 세우리라. 풀을 베고 더운가리하여 밀과 보리를 심어 보세. 끝까지 다 익지 못했어도 금년 대로 짓고 갈쇼. 사람의 일만 그려 놓을 것이 아니라 자연 현상도 마찬가지이니 잠시도 실 사이 없이 마치면서 다시 새로운 것이 시작되도다.</p>

③ 핵심정리

43) 조선 후기 문인. 호는 운포(耘浦) 정약용의 둘째아들로 일생을 문인으로 마쳤다. 경기도 양주에서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실학 정신을 실천하려고 노력했다.
 44) 김윤식 외, 『문학』 상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디딤돌, 2002. (소단원-문학의 기능)

- 갈래 : 가사
- 연대 : 순조 16년(1816)
- 형식 : 3.4(4.4)조. 4음보의 연속체
- 구성 : 전체 13장 1036구로 된 장편가사의 월령체(달거리라고도 함).
- 성격 : 교훈적. 계몽적
- 주제 : 월령과 절후에 따라 농가에서 해야 할 일과 세시 풍속의 소개
- 의의 : 월령가로서는 가장 규모가 큰 작품. 조선 후기 농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실학의 태도를 집약하게 한다. 실학자 중 이익이나 정약용은 사대부들도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까지 주장하였다. 우리말 노래로서 농업 기술의 보급을 처음 시도한 작품이다.

④ 이해와 감상

이 노래는 농촌에서 12달에 걸쳐 행할 일과 철마다 다가오는 세시풍속, 그리고 계절에 따라 지켜야 할 예의범절을 노래한 일종의 교훈가이다. 전체 구성은 서사를 합쳐 총 13장으로 된 장편 가사로, 월령체 형식을 지닌 노래이다. 수록된 부분은 팔월령으로, 중추인 8월의 절기와 백곡의 무르익음과 수확, 중추절을 위한 장 흥정, 며느리의 친정 근친 등을 노래하고 있다. 농촌 생활과 관련된 구체적 어휘가 풍부하게 나타난다는 점, 농촌 생활의 부지런한 활동을 실감나게 제시했다는 점, 그리고 세시 풍속을 기록해 놓은 월령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짜임새가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할 만하다.

⑤ 「농가월령가」의 의의

농가의 일년 행사와 세시 풍속을 달에 따라 읊으면서, 철마다 다가오는 풍속과 지켜야 할 예의범절을 가르치는 교훈적인 글로, 농촌 생활과 관련된 구체적인 어휘의 구사와 농촌 생활의 활기를 느끼게 하는 생동감 있는 표현 등으로 그 가치가 뛰어난 작품이다.

⑥ 「농가월령가」 등장의 배경

「농가월령가」는 조선 후기 실학사상의 영향 아래 농업 및 화폐 경제의 발달을 배경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 작품에서 면화를 많이 갖고 누에를 열심히 먹이도록 권유하는 등 농업에 힘쓰기를 강조하는 것은 자급자족의 차원을 넘어서 그것을 수공업 상품으로 생각하는 중상적인 사고방식이 발휘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⑦ 「농가월령가」의 문학적 기능

「농가월령가」는 마치 월중 행사표처럼 농가에서 매달 해야 할 일을 알려 준다는 점에서 인식적 기능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농민들에게 근면하게 농사에 힘쓸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윤리적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풍부한 음악적 요소로 인하여 흥겨움을 느낄 수 있는 미적 기능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세 가지 기능으로 개인의 삶의 질을 고양시켜줄 뿐만 아니라 농촌 사회의 풍속과 문화를 바탕으로 농민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농촌 공동체의 의사를 결집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동체 통합의 기능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⑧ 「농가월령가」에서의 자연

「농가월령가」에서 자연은 노동(勞動)의 현상이자 생활의 현상이다. 여기서 자연은 생산물이 만들어지는 곳이지 완상(玩賞)의 대상이 아니다. 4월령에서 천렵(川獵)이 나오나 이것도 양반 사대부의 것이 아니라 농민들의 즐거움이다. 그런 면에서 이 노래에서의 자연의 심미(審美)의 대상도 아니고, 풍류(風流)의 대상도 아니며, 생산물이 만들어지는 노동의 현상이자 생활의 현상이다. 전대(前代)의 사대부들이 관념적으로 생각했던 자연이 아니라 실제 농민들의 삶의 현상이나 생활의 원천으로서의 자연인 것이다.

7) 「연행가(燕行歌)」 - 홍순학(洪淳學 1842-1892)45)

① 작품 보기

(전략) 하 오월 초칠일의 도강 날즈 정혀여네. 방물을 정검히고 형장을 슈습혀여 압록강변 다다르니 송객정이 여기로다. 의주 부운 나와 안고 다담상을 츠려 늦코 삼 사신을 전별홀시 쳐창키도 그지없다. 일빅 일빅 부일빅는 서로 안져 권고하고 상스별곡 흥 고조를 참아 듯기 어려워라. (중략) 녹창 주호 여염들은 오식이 영농하고 화소 처란 시경들은 만물이 변화하다. 집집이 호인들은 길의 나와 구경하니 의복기 괴려혀여 처음 보기 놀랍도다. 머리는 압흡 깎가 뒤만 싹혀 느리쳐서 당스실노 당귀하고 말익이를 놀너 쓰며 일 년 삼백육십 일에 양치 한 번 아니혀여 이빨은 황금빛이요 손톱은 다섯 치라. (중략) 썩습시 먹는 밥은 기장 좁쌀 슈슈쌀을 녹난하게 슬마 너여 닝슈의 칩워 두고 진피는 다 썩져서 아모 맛또 업는 거슬 남녀 노소 식구되로 부모 형제 처즈 권속	여름 5월 7일이 압록강을 건너는 날짜로 정해졌네. 가지고 갈 물건을 정검히고 여행 장비를 잘 정돈하여 압록강가에 다다르니 송객정이 여기로구나. 의주 부운이 나와 앉아서 다담상을 차려 놓고 세 사신을 전별하는데 구슬프기도 한이 없다. 한 잔 한 잔 또 한잔으로 서로 앉아 권고하고 상사별곡 한 곡조를 차마 듣기 어려워라. 녹색 창과 붉은 문의 여염집은 오색이 영롱하고 화려한 집과 채색한 난간의 시가지는 만물이 변화하다. 집집마다 만주 사람들은 길에 나와 구경하니 옷차림이 괴이하여 처음 보기에 놀랍도다. 머리는 앞을 깎아 뒤만 땡아 늘어뜨려 당사실로 땡기를 드리고 마래기라는 모자를 놀러 쓰며 일 년 삼백 육십 일에 양치질 한 번도 아니하여 이빨은 황금빛이요 손톱은 다섯 치나 된다. 때도 없이 먹는 밥은 기장, 좁쌀, 수수쌀을 폭 삶아 내어 냉수에 채워 두고 끈끈한 기운은 다 빠져서 아무 맛도 없는 것을 남녀 노소 식구대로 부모 형제 처자 권속
--	---

45) 본관 남양(南陽). 자 덕오(德五). 철종 8년(1857) 문과에 급제하여 정언 · 수관관을 거쳐 1886년(고종 11) 주청사(奏請使)의 서장관으로 청나라에 다녀와서 장편의 기행가사(紀行歌辭) 「연행가(燕行歌)」를 지었다. 대사헌 · 대사간 · 예조참의를 지내고 1884년 감리인천항(監理仁川港) 통상사무가 되고 이듬해 인천부사(仁川府使)를 겸임하였으며, 그 뒤 협판교섭(協辦交涉) 통상사무를 지냈다.

한 상의 돌너안져 흥 그릇씩 밥을 써서 겨짜치로 그러 먹고 낮부면 더 써온다. 반찬이라 흥는 거순 뉘히기름 날파 나물 큰 독의 담은 장은 소금물의 며주 너코 날마다 갓갓갓금 막되로 휘저흐니 죽 거튼 된장물을 장이라고 써다 먹되. (중략) 농스흥기 길삼흥기 브즈런이 위업한다. 집집이 디문 압히 싹흔 거름 틈산 긋고 논은 업고 밭만 있어 온갖 곡식 다 심운다. 나귀말기 장기 메여 소 업셔도 능히 갈며 흙의주로 길게 흥여 기움되기 서서 흥다. 씨아질의 물레질과 꾸리 겪는 계집이라. 도투마리 날을 밀 제 풀칠 안코 잘들 흥며 벼틀이라 흥는 거순 경첩하고 지치 있다. 쇠꼬리가 아니라도 잉아 능능 어렵잔코 복을 지어 더지머는 바디질은 절노 흥다. (후략) 출전 : 『심재완 교합본(沈載完 校合本)』	한 상에 돌러앉아, 한 그릇씩 밥을 떠서 젓가락으로 긁어 먹고, 부족하면 더 떠다 먹는다. 반찬이라 하는 것은 돼지기름과 날파 나물 큰 독에 담은 장은 소금물에 메주 넣고 날마다 가끔가끔 막대기로 휘저으니 죽 같은 된장물을 장이라고 떠다 먹네. 농사하기, 길쌈하기 부지런히 일을 한다. 집집마다 대문 앞에 쌓은 거름이 태산 같고 논은 없고 밭만 있어 온갖 곡식을 다 심는다. 나귀와 말에게 쟁기를 메어 소 없어도 능히 갈며 호미자루 길게 하여 김매기를 서서 한다. 씨아질에 물레질과 실꾸리 감는 계집이라. 도투마리 날을 땀 때 풀칠을 하지 않고 잘들 하며 벼틀이라 하는 것은 가쁜하고 재치가 있다. 쇠꼬리가 없더라도 잉아 사용 어렵지 않고 복을 집어 던지면은 바디질은 저절로 한다.
--	--

② 핵심정리

- 연대 : 고종 3년(1866)
- 갈래 : 가사. 기행 가사. 사행(使行) 가사
- 율격 : 4.4조 위주의 4음보격
- 성격 : 사실적. 객관적. 비판적. 서사적
- 문체 : 가사체. 운문체
- 특징 : 서술 대상에 대한 다양한 관심과 예리한 관찰력이 돋보인다. 존명 배청(尊明排淸-명나라를 높이고 청나라를 배척함)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국(異國)의 문물과 풍속, 인물 등에 대한 묘사가 사실적이다.
- 의의 : 김인겸(金仁謙)의 「일동장유가(日東壯遊歌)」와 함께 조선 후기 기행 가사의 대표작이다.
- 주제 : 청나라 연경(燕京)을 다녀온 견문과 여정

③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일명 「병인연행가(丙寅燕行歌)」, 「북원록(北轅錄)」, 「연행록(燕行錄)」, 「원향록」 등 여러 이름으로 전하며, 중국을 다녀온 내용을 적은 것인데, 당시 중국에 가는 목적이 주로 사행(使行)이었으므로 이런 내용을 가진 작품들을 가리켜 ‘사행(使行)가사’라고도 한다. 김인겸의 「일동장유가」와 더불어 조선 전기의 양반 가사를 계승하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작품의 길이 역시 총 3,924구로 된 장편 기행 가사로 매우 긴 것이 특징이다.

④ 갈등의 대청(對淸)의식

작품에서 “일 년 삼백육십 일에 양치 한 번 아니하여 이빨은 황금이요, 손톱은 다섯 치라.”고 한 것은 청나라 사람을 멸시한 예라고 하겠다. 청나라 궁궐에 들어가서 황제의 동가를 보면서 “용봉지자 천일지표 어떠하신 천안인고?”라고 기대감을 표명한 다음, “천하의 제일인이 호복한 이 자란 말가?” 하고 실망을 나타낸다. 여기서 우리는 지은이의 가슴 속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는 대청 의식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실망감의 표현은 지은이의 마음속에 일고 있는 일종의 갈등을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정공수, 황운곡, 동문환, 방정여, 방범염, 왕조제, 황현인 등을 만나보고, 그 인물들의 준수한 기상과 고결한 성품을 찬양한 다음, “모두 다 대명(大明)적에 명문거족 후예로서, 마지못해 삭발하고 호인에게 벼슬하나. 의관이 수통함은 분한 마음 맺혔구나, 예의 의관 조선 사람 형제같이 반긴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데에서는, 명나라 후에 곧 한인과 청나라 사람 곧 호인을 구별하여, 전자를 망국민이기는 하지만 잃어버린 조국에 대한 강개지심을 가진 문화와 예의의 선비들이라고 생각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데 반하여, 후자는 비록 천자(天子)라 하더라도 문화와 예의 풍속에 있어서는 미개한 야만으로 멸시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한편, 지은이는 비록 호인이라 하더라도 좋은 풍습, 부지런한 처신들에 관해서는 진심으로 이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정확하게 평가하는 객관성을 가지기도 하였다. 육아법에 관한 묘사나, 농사와 길쌈에 부지런함을 노래한 것이 그 예가 된다.

III. 제7차 교육과정의 가사 지도 실태

1. 7차 교육과정과 가사의 문학 교육적 위상

7차 교육 과정에서 제시한 국어 교과 성격은 한국인의 삶이 배어 있는 국어를 창의적으로 사용하는 능력과 태도를 길러, 정보화 사회에서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국어 생활을 영위하고, 미래 지향적인 민족의식과 건전한 국민 정서를 함양하며, 국어 발전과 국어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뜻을 세우게 하기 위한 교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7차 교육 과정에 제시한 국어과의 교육 목표>

- 언어활동과 언어와 문학의 본질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언어활동의 맥락과 목적과 대상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국어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국어의 발전과 민족의 언어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 가. 언어활동과 언어와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혀 다양한 국어사용 상황에서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 나. 정확하고 효과적인 국어사용의 원리와 작용 양상을 익혀 다양한 유형의 국어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사상과 정서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 다. 국어 세계에 흥미를 가지고 언어 현상을 계속적으로 탐구하여, 국어의 발전과 국어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교육목표에서 제시한 ‘국어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국어의 발전과 민족의 언어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는 능력을 기른다.’는 가사 문학을 텍스트로 하는 학습의 기준점이 되고 궁극적 목적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중요한 학습 내용 요소가 된다

고 할 수 있겠다. 또한 '국어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태도'는 학습자가 학습 활동의 과정에 서나 결과에서 행동화로 나타나야할 중요한 도달 목표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가사 문학 작품의 구성 요소와 그 기능을 이해하며, 문학의 갈래에 다른 작품의 미적 가치를 파악하고, 작가·작품·독자의 관계를 알아, 이를 작품 수용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며,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가사 문학을 통해 한국 문학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려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이다.

<7차 교육 과정에 제시한 문학 교육의 본질과 목표 그리고 그 내용 체계>

문학 교과는 문학의 본질을 '국어 문화의 한 분야인 언어 예술'로 보고 국어과 안에서 '문학' 과목의 하위 영역으로 위치한다. 문학 교육의 목표는 '문학의 수용과 창작활동을 통하여 문학 능력을 길러 자아를 실현하고 문학 문화 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바람직한 인간을 기른다.'이다.

- 내용 체계 : ①문학의 본질 ②문학의 수용과 창작 ③문학과 문화 ④문학의 가치화와 태도

또한 문학 교육으로써의 가사문학 교육의 목표는 '가사 문학을 수용하고 창작활동을 통하여 문학 능력을 길러 자아를 실현하고 문학 문화 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바람직한 인간을 기른다.'이다. 다시 말해 가사 문학 교육을 통해 문학 활동의 기본 원리와 문학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이해하고, 가사 문학 작품을 수용하고 창작 활동을 함으로써 문학적 감수성과 상상력을 기르며, 가사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세계를 이해하며, 문학의 가치를 자신의 삶으로 통합하려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문학의 가치와 가사 문학의 가치를 이해하고 전통 문화를 이해하여 문학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문학 문화 발전에 기여하려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이다.

2. 제7차 교육과정의 가사 지도 실태

<제7차 교육과정 18종 문학 교과서의 가사 작품 수록 실태>

출판사 작품	디 딤 들	천 재	금 성	두 산	문 원 각	블 랙	민 중	중 앙	한 국	상 문	교 학 (구)	교 학 (김)	지 학 (권)	지 학 (박)	대 한	청 문 각	태 성	형 설	국 어 (高)	계	
																					1
1 상춘곡			上	*下																	8
2 면양정가																					6
3 관동별곡																					3
4 사미인곡	*下	下	上	上	下	下	下	*上	*下											*上	11
5 속미인곡	下	*下		*上	*下		*下	下	下		下	*下	下	下	下	下	下	下			14
6 규원가	下																				5
7 선상탄																					2
8 누항사					下																3
9 농가월령가	上	*下																			6
10 일동장유가			*上																		3
11 연행가	*下																				1
12 상사별곡	*下																				2
13 용부가																					1
14 동심가																					1
15 창 의 가																					1
16 독립군가																					1
17 경부철도가																					1
18 가요풍송																					1
19 애국하는노래				*下	*下		*下														3
계	6	5	3	4	2	4	11	10	5	1	6	3	2	1	3	2	1	3	1		

*표시는 본문 외의 학습 활동 등에 수록된 작품

<교과서 수록 작품의 분류 체계 및 제6차·7차 가사 작품 수록 여부>

수록작품	작가	분류기준		중심내용	교과서 수록	
		내용	일반		6차	7차
상춘곡	정극인	강호	서정가사, 정격가사	봄의 완상과 안빈낙도	○	○
면양정가	송 순	강호	강호	자연을 감상하는 즐거움	○	○
성산별곡	정 철	강호	강호한정가	성산의 풍물과 풍류	△	
관동별곡	정 철	기행	기행가사	관동팔경의 아름다움	국上	국下
사미인곡	정 철	연군	서정	임금을 대한 간절한 충절	○	○
속미인곡	정 철	연군	서정	임금을 그리는 정	○	○
규원가	허난설헌	규방	내방(규방)가사, 서정	봉건제도 하에서의 부녀자의 한	○	○
선상탄	박인로	전쟁	전쟁가사	애국단심	○	○
누항사	박인로	강호	은일, 한정	빈이무원의 삶	○	○
농가월령가	정학유	실용	장편서사가사, 월령체가사	달과 절기에 따른 농가의 일과 풍속	○	○
일동장유가	김인경	기행	장편기행	일본의 풍속 제도 인정 견문	○	○
연행가	홍순화	기행	장편기행가사	연경 기행 견문	국下	○
상사별곡	미상	애정	12가사	남녀간의 상사의 정		●
용부가	미상	교훈	내방가사	추행 풍자에 의한 경세	○	○
우부가	미상	교훈	내방가사	경세와 훈민	△	
심어사	미상	개화	개화, 서정, 평민, 연행체	인생(체념적, 낙관적 사상)	△	
동심가	이중원	개화	개화	현실을 직시하고 문명을 개화함	○	○
창 의 가	신태식	의병	의병	의병활동 내력		●
독립군가	미상	개화	개화가사, 의병가사	항일투쟁정신		●
경부철도가	최남선	개화	개화가사	개화의식 계몽		●
가요풍송	미상	개화	개화가사	국민기풍의 정화와 진작		●
애국하는노래	미상	개화	개화, 교술, 목적	개화 계몽을 통한 애국		●

●표시는 7차에 새롭게 추가된 작품, △표시는 6차에서는 수록 되었으나 7차에서는 빠진 작품

<11종 문학 교과서 영역별 가사 분류>46)

영역	내용	가사작품	
(1) 문학의 본질	(가) 문학의 본질	① 문학과 언어 문학과 삶의 관계를 이해한다. ② 문학이 인지적·정의적·심미적 복합 구조물임을 이해한다.	상춘곡 관동별곡 규원가 농가월령가(2) 일동장유가 동심가
	(나) 문학의 기능	① 문학이 인식적·미적·윤리적 기능이 있음을 이해한다. ② 문학이 개인적 삶의 고양과 공동체 통합의 기능이 있음을 이해한다.	
	(다) 문학의 갈래	① 문학 갈래의 개념과 갈래 구분의 원리를 이해한다. ② 갈래의 체계 속에서 문학을 통시적으로 이해한다.	
	(라) 문학의 가치	① 문학이 가치의 산물임을 이해한다. ② 문학 활동이 언어적 문화적 실천 활동임을 이해한다.	
(2) 문학의 수용과 창작	(가)문학의 수용과 창작 원리	① 문학은 갈래와 작가, 문화적 배경 등에 따라 미적 구조가 다양함을 이해한다. ② 내용·형식·표식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작품이 이루어짐을 이해한다. ③ 작품의 주제는 주제·구조·맥락의 상호 작용을 통해 구성됨을 이해한다.	상춘곡 사미인곡(3) 속미인곡
	(나) 문학의 수용	① 작품을 인식적·미적·윤리적 측면에서 이해하고 감상한다. ② 작품 이해와 감사의 결과를 비판적·창의적으로 수용한다. ③ 작품에서 다른 가치를 자신의 삶과 연관 지어 내면화한다.	
	(다)문학의 창조적 재구성	① 작품을 수용자의 처지에서 비판적·창조적으로 재구성한다. ② 문학 활동의 결과를 내면화하여 자신의 삶으로 구체화한다.	
	(라) 문학의 창작	① 다양한 시각과 방법으로 기본 갈래에 해당하는 작품을 창작한다. ② 창작한 작품을 발표하고 서로 평가한다.	
(3) 문학 과 문 화	(가)문학문화의 특성	① 국어 문화의 관점에서 문학을 수용·창작한다. ② 문학의 소통 과정에서 작용하는 규칙과 관습을 이해한다.	면양정가(2) 사미인곡(5) 관동별곡 규원가(2) 누항사 일동장유가 상사별곡 애국하는 노래(2) 동심가 독립군가 가요풍송
	(나)한국 문화의특질 과 흐름	① 한국 문학의 개념·성격·갈래 특질을 이해한다. ② 한국 문학의 대표적인 작품을 읽고, 한국 문학사의 전통과 지향성을 이해한다.	
	(다)세계 문학의 양상과 흐름	① 세계 문학의 양상과 흐름을 개괄적으로 이해한다. ② 한국 문학과 세계 문학이 서로 교섭하는 양상을 이해한다.	
	(라) 문학의인접영역	① 문학은 인접 예술을 비롯한 사회·문화 현상과 밀접하게 관계됨을 이해한다. ② 문학이 현대 사회의 다양한 매체와 결합하여 수행되는 양상을 이해한다.	
(4) 문 학 의 가 치 화 와 태 도	(가)문학의가치 인식	① 인식적·미적·윤리적 관점에서 문학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과 원리를 이해한다. ② 주제와 맥락에 따라 작품의 가치를 평가한다.	대조선 자주 독립 애국하는 노래 창의가
	(나)문학 활동에의 능동적 참여	① 작품의 수용과 창작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② 문학 활동을 통해 인간과 세계를 통합적으로 이해한다.	
	(다)문학에대한 태도	① 문학 활동을 하면서 문학 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지닌다. ② 통일문학, 세계문학과 관련하여 한국 문학의 가치를 찾고 계승·발전시키는 태도를 지닌다.	

3. 교수·학습의 실제 - 「관동별곡(關東別曲)」을 중심으로47)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는 「관동별곡」의 위상과 학습활동의 양상을 통해 가사문학의 교육적 위치와 의미를 살피고자한다.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는 가사 작품은 관동별곡 한 편이다. 관동별곡의 제재가 국어 교과서에서 어떠한 위상으로 선정되었는가를 살피면 가사의 위상을 살필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5. 감동을 주는 언어

I. 단원의 개관

◎ 학습목표 · 문학 작품의 아름다움을 파악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 상황에 따라 적절하고 가치 있는 내용을 생성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 상황에 따라 내용을 적절하게 생성하여 글을 쓴다.

◎ 단원의 내용구성

감 동 을 주 는 언 어

(1) 관동별곡
· 자연과 인간 : 자연과 '나', 자연과 미
· 자연의 조화를 본받는 방식과 미
송고, 우아, 비장, 골계

(2) 간디의 물레

II. 교수·학습 계획

46) 이명심, 「가사문학의 특성과 학습활동 방향 모색」, 성균관대 교대원, 2002.

47) 『고등학교 국어』(하)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교육인적자원부, 2002, (단원명-5.감동을 주는 언어)

학습할부분	주요내용 및 활동	
· 단원의 길잡이 · 준비학습	· 학습 목표 제시 및 주요 활동 개관 · 예술 작품의 아름다움 파악	
(1)관동별곡	이해	· 관동별곡의 내용 · 문학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의 범주 · 문학의 추구하는 아름다움의 범주별 특성 · 관동별곡의 미적 특성
	활동	· 관동별곡의 어구를 풀이하기 · 관동별곡의 구성을 파악하고 의미를 해석하기 · 관동별곡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글로 표현하기 · 관동별곡의 미적 표현 방식을 내면화하기
(2)간디의 물레		
단원의 마무리	· 학습 내용 정리하기 · 학습 성과 점검하기	
보충학습	· 문학 작품의 재미있는 표현과 아름다움 파악하기 · 실제 작품의 미적 표현 방식을 근거로 한 표현하기	
심화학습	· 내용 생성과 일반화의 틀 이해하기 · 양식에 따른 내용 생성과 그 전개 방식 이해하기	

▷ 지도상의 유의점 : 문학 작품의 아름다움을 작품의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을 바탕으로 이해하고, 일상의 언어활동이나 창조적 표현에서 항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태도를 갖도록 지도한다.

- 그림, 한시, 가사, 민요를 제재로 학습자들 자신의 자연스런 느낌을 바탕으로 아름다움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고, 교사는 학습자들이 미에 대한 세련된 감수성을 갖도록 유도하고 권장한다. 단 「관동별곡」의 경우 지나치게 혼고 주석에 치우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용 파악을 할 수 있게 한 다음 문학적 표현의 아름다움을 이해하게 해야 한다.

III. 교수·학습의 실제

◎ 준비학습

· 문학 작품의 아름다움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다른 예술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고, 내용의 생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그 기본에서 생각해 보게 한다.

- 자연을 예술적으로 형상화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미술(은보 김기창의 '강호정담')과 문학(정지상의 '송인')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방식을 점검

(1) 관동별곡

1. 구성 취지

'관동별곡'은 일차적으로 '문학 작품의 아름다움을 파악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는 교과 과정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재로 선정된 것이고, 정선의 그림들은 '관동별곡'의 이해와 감상을 돕기 위한 자료이면서 문학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을 미술이 추구하는 아름다움과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자료이기도 하다. '알아두기'는 주로 미적범주(美的範疇)를 중심으로 구성하였고, '학습 활동'은 '알아두기'에서 학습한 지식을 '관동별곡'에 적용하는 활동과 '관동별곡' 자체를 이해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① 이 작품이 가사(歌辭) 문학 중에서 기념비적인 작품으로서 고전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 ② 6차 교과서에도 이 작품이 수록되었는데, 고전적인 가치가 있는 작품을 계속 교과서에 수록하는 이유는 문학적 전통의 계승을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동일한 작품을 여러 대(代)에 걸쳐 배움으로써 세대간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 ③ 이 작품이 관동 팔경(關東八景)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것이므로 문학 작품의 아름다움을 이해하는 데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④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작품을 통해 자연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오늘날 생태적 위기 속에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 성찰하게 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제재의 내용 구성

강원도 관찰사 부임(1~15행)	1~3행 관찰사 배명(拜命) 4~7행 부임의 노정	8~15행 관내 순시
내금강 등정길 (16~65행)	16~22행 만폭동 폭포의 장관 23~26행 금강대 위의 선학 27~37행 진현대에서의 조망 38~45행 개심대에서의 금강산 조망	46~51행 개심대에서 비로봉을 본 감회 52~57행 화룡소에서의 감회 58~65행 불정대 십이폭포의 장관
외금강, 해금강, 동해안 탐승 (66~111행)	66~73행 동해로 향하는 감회 74~77행 총석정에서 본 백옥루의 장관 78~82행 삼일포에서의 네 신선 회고	83~91행 의상대에서 본 일출의 장관 92~104행 경포의 장관과 강릉의 미풍 양속 105~111행 죽서루에서의 객수
망양정에서의 하룻밤 (112~146행)	112~117행 (낮)망양정에서 본 파도의 장관 118~128행 (밤)망양정 월출과 도선적 풍류 129~143행 꿈에서의 신선과 인연	139~143행 선정예의 포부 144~146행 꿈에서 잠을 깬

3. 제재의 활용 방안

'관동별곡'은 일차적으로 문학 작품의 아름다움을 파악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학습 활동의 제재이므로 '아름다움(美)'의 측면에서 접근하도록 해야 한다. 문론 작품 내용이나 문학사적 의의, 작가 의식 등의 기본적 학습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학습은 단원 학습 목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 제재는 고어 표기예다 한자어까지 그대로 노출했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스스로 이해하고 감상하기가 쉽지 않다. 주어진 시간 내에 어휘 풀이를 비롯한 여러 활동을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교사는 미리 모듈별로 이 제재의 기본적 이해를 위한 조사 활동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어휘 풀이나 구절의 의미 파악이 선행되지 않으면 '아름다움'에 대한 논의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겸재 정선의 그림들은 '관동별곡'을 이해하는 보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비교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또 그림을 먼저 감상한 다음 '관동별곡'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 학습자들의 문학 작품과 회화 작품이 모두 미를 추구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미의 관점에서 문학과 미술을 수용할 수 있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알아두기

· 자연과 나 : 자연에는 일정한 틀도, 명확한 경계도, 시작도 끝도 없다. 그뿐만 아니라 자연의 사물들은 명확한 관계가 드러나지 않은 채 서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자연을 바라보는 감상자인 '나'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자연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난다.
· 자연과 미 : 인간이 자연을 대하는 방식에서 미가 드러난다. 인간이 자연을 대하는 방식은 자연을 변형하는 방식, 자연을 모방하는 방식 및 자연의 조화를 본받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가사에서는 자연을 변형하거나 모방하는 방식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 대체로 자연의 조화를 본받는 방식의 미가 많이 나타난다.

◎ 학습 활동

혼자하기 1. '弓國王 大대關隴 吐희 烏오鶻자이 지지괴니, 千천古古 興興亡亡망을 아는다, 몰으는다.'라는 구절에는 날짐승인 '오작'에게 말을 건네는 행위가 나온다. 이것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할 때 가능한 일인지 말해 보자.

→ 이는 자연을 대하는 인간의 자세를 살피는 활동이다. '오작'을 작가의 감정과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행위를 통해 자연 친화적 자세를 지니고 있음을 관찰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자세가 문학의 아름다움으로 나타난 것이고, 이것이 우리 조상들이 자연을 대하는 아름다운 삶의 자세임을 간접적으로 전수하고자 하는 의도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함께하기 2. 지금까지 읽은 부분에서 인간과 자연이 매우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다는 생각을 담고 있는 표현을 더 찾아 이야기해 보자.

→ 이는 인간인 작가가 자연을 인간과 단절된 대상을 인식하지 않고 상호 교류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 드러난 표현을 뜻하는 것으로, 작품 속에 드러난 작가의 자연에 대한 인식을 살피는 것이다. 이로써 고전 문학으로서 작품이 지닌 미적 아름다움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이다.

◎ 알아두기

· 자연의 조화를 본받는 방식에서 생겨나는 미(1) : 자연은 그 나름대로의 이치와 질서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이를 자연의 조화라고 한다. 자연을 바라보는 '나'가 자연의 조화라는 가치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일 때 그 아름다움은 우아(優雅)로 나타난다. 반대로 자연의 질서나 이치를 의의 있는 것으로 존중하지 않고 추락시킬 때 골계(滑稽)가 나타난다.

◎ 학습 활동

함께하기 '어와 너여이고, 너 ㅁㄸ니 쯔 잇는가.'라는 구절에서 다음 사항들을 중심으로 자신의 생각을 말해 보고,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 (1) 이 구절에서 '너'라고 지칭하고 있는 대상은 무엇인가?
- (2) '너'의 어떤 모습을 보고 이와 같은 말을 하는가?
- (3) '나'는 '너'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 (4) 자연에 대해 '나'처럼 바라본 적이 있는가?

→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망고대와 혈망봉이 북극을 향하여 무엇인가 긴요한 일을 아뢰겠다고 천만 년이 지나도 굶힐 줄 모르는 강직한 자세로 우뚝하니 솟은 모습을 찬양하고 이는 임금에게 간언(諫言)을 하여 진충보국(盡忠保國)을 하겠다는 강직한 신하를 연상케 하는 모습으로 작가의 忠義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알아두기

· 자연의 조화를 본받는 방식에서 생겨나는 미(2) : 자연을 인식하는 '나'가 자연의 조화를 현실에서 추구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일 때, 그 아름다움은 숭고(崇高)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러한 '나'의 실현 의지가 현실적 여건 때문에 좌절 될 때 비장(悲壯)이 나타난다.

◎ 학습 활동

함께하기 1. '陰음崖崖에 이온 풀을 다 살와 내어스라.'라는 구절을 중심으로 다음 활동을 해 보자.

- (1)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뜻인지 이야기해 보자.
- (2) 이 구절의 앞부분인 '圓圓通통골 ㅁ는 길로~삼삼日日雨우를 디런느다.'에서 '나'가 자연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자.
- (3) (1)과 (2)를 종합할 때, 어떤 아름다움이 드러나는지 이야기해 보자.

→ 이는 작가가 정치가로서 선정에 대한 포부를 드러내고 있는 구절로 자연의 조화와 질서를 본받고자 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로써 모든 백성을 골고루 행복하게 하겠다는 높은 이상을 현실에 실현하고자 하니 숭고미(崇高美)라 할 수 있고, 자연에 용이 비를 흠족하게 내려 만물을 살게 하는 조화를 본받아 인간세계도 그렇게 하겠다는 실천 의지를 나타내고 있으니 숭고미를 구현하고 있는 대목이다.

혼자하기 2. '仙仙槎사를 띄워 내어 斗斗牛우로 向向嚮嚮살가, 仙仙人人을 츠즈러 丹丹穴穴혈의 머므살가.'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는 아름다움에 대해 글을 써 보자.

→ 이는 현실 세계를 벗어나 초월적인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나타낸 것이다. 허나 작가는 유한한 왕정의 길에 서 있고 버릴 수 없는 입장에 있으므로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좌절되는 것으로 '비장미'를 느끼게 하는 구절이다.

◎ 마무리

문학의 아름다움과 미의 범주 : 문학은 예술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문학이 추구하는 미는 크게 우아, 숭고, 비장, 골계 등이다. 이러한 미적 범주는 대상에 대한 주체의 태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 점검하기

내 용	상	중	하
· 문학 작품의 아름다움을 파악할 수 있다.			
· 문학 작품에 나타난 미의 범주를 구분할 수 있다.			
· 문학 작품을 읽고 자연에 대한 태도를 파악할 수 있다.			
· 문학 작품의 내용이 감동을 주는 이유를 말할 수 있다.			

「관동별곡」을 통한 가사 문학의 위상은 가사 문학은 꼭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점이다. 이의 준거로 '우리의 역사적 삶을 담고 있어 민족적 정체성을 확신하게 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국어과 교육 목표와 관련하여 보면 총론에서 '문학의 본질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국어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국어의 발전과 민족의 언어문화 창달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

한 '한국 문학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지닌다.'는 것이다. 이를 상세화 하면 '한국 문학에 나타나는 민족적 전통성, 즉 언어의 단일성, 문학의 창조자와 수용자의 단일성, 민족 개념과 국가 개념의 동질성과 문학 형식과 내역을 중심으로 한 전통성, 민족 문학을 한국 문학의 미래형으로 상정하기 위한 통일을 지향하는 전통성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발전해야 함을 이해하도록 선정된 항목'으로 '한국 문학의 갈래와 전개 과정을 이해하기, 한국 문학에 중심으로 드러난 주제를 세계 문학의 주제와 비교하기' 등의 학습 요소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가사문학이 갖는 '문학 보편적 가치'와 '한국문학사적 가치'를 갖는 위상을 부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습활동'은 가사 문학이 국어과 교육 목표와 관련된 가사문학의 위상을 갖고 얼마나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가름하는 중요한 준거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현행 7차 교육 과정에 나타난 가사문학 교육의 양상을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관동별곡에서 제시한 학습활동의 양상을 정리하면 주로 관동별곡의 내용과 관련하여 문학의 특질을 이해하는 준거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 선조들의 삶의 자세와 문학적 정서를 이해하는 중요한 문학 자료가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 문학의 갈래와 전개 과정을 이해하기'에 대한 활동은 전무하다. 가사문학이 한국 문학의 독창적인 갈래로서 문학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가사 문학 작품으로는 유일한 입장에서 문학사적 의의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은 통합적 구성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는 것에도 위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교과서가 절대적인 텍스트가 아닌 것처럼 학습활동도 예상할 수 있는 활동으로 본다면, 이런 점을 경계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내용을 담아 갈 수 있을 것이다.

IV. 가사 지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가사지도의 문제점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가사 장르는 작가·내용·시대에 있어 고르게 선정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작가면에 있어서 제재로 선정된 작품의 작가는 대부분 양반에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가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서민 가사가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선정은 가사 장르의 성격을 제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내용에 있어서는 연군·강호한정·전쟁·실생활·여인의 삶·기행·교혼·개화(계몽)를 내용으로 한 작품들이 선정되었는데 그 중 연군과 강호한정이 대부분이었다. 이것은 많게는 21항목까지 나눌 수 있는 가사의 다양한 내용을 소홀히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6차까지만 해도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던 -가사가 시대의 상황을 적절히 반영한 문학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현실비판이나 항일의병·우국 등 개화가사가, 다행히도 7차 교육과정에서는 미흡하게나마 추가 수록되어 있다. 시기별로는 조선전기에 해당하는 작품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 역시 나머지 시기에 대한 고른 선정이 아니므로 학생들에게 가사의 전반적인 성격을 보여주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다.

또한 대체적으로 가사 문학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와 가사 양식에 대한 인식이 저급함을 알 수 있었고, 가사의 양식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다른 시가 문학과 차별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갈래에 대한 관점도 시가문학으로써 교술 문학으로만 대별되는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심한 경우에는 문학사적 언급에서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가사문학의 개별 작품이 갖는 위상에 대해 문학사적 측면에서 가사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민족 문학의 중요한 자산으로 가사문학에 대한 가치를 가벼이 여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가사 교육과 관련한 국어 교과서 「관동별곡」의 학습활동은 역사적 장르로서 가사문학이 갖는 작품이해에 대한 활동이, 문학의 특질을 이해하는 활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너무 약화되어 있음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포괄적 의미의 문학기해의 폭은 넓힐 수 있으나 민족문학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것을 문학적으로 수용하여 내면화하고 실천을 기대 하는 데는 한계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2. 지도 방법

가사는 두 마디씩 짝을 이루는 울분의 구조만 갖추면 내용은 무엇이든지 노래했던 양식이다. 따라서 그 길이도 자유롭게 길어질 수 있었으므로 장가(長歌)라고도 했다. 형식적 요건이 단순하기 때문에 향유 층도 매우 다양할 수 있었으며, 이 점이 가사의 내용을 다채롭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되기도 했다. 또한 대부분의 작품이 우리말로 표기되었다.

이러한 점으로 비추어 학생들에게 고전 문학은 모두 어렵다는 편견은 버릴 수 있도록, 우리 문학에서 가사 문학이 차지한 위치를 비롯하여 가사의 형식과 내용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했는지 가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하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비록 학생들이 가사문학에서 사용한 당시의 언어를 해독하는 과정은 그다지 용이하지 않겠지만, 작품 속에 나타나는 우리 선조들의 삶을 이해하는 과정과 표현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과정을 언어 해독과 적절하게 병행하여 가사문학의 실체를 온전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문학이 창작되고 향유 된 시대가 다르게 때문에 학생들에게 무조건적인 이해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과거의 전통을 현대와 접목시킬 수 있는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 방법으로 가사문학이 아주 생소하고 어려운 장르가 아님을 학생들이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학생들 스스로 가사를 지어 보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고전은 문헌 속에 간직된 문학이며 고전 문학 교육은 과거 문학의 맛보기 교육이라는 기존의 의식을 버리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지도 방법에 대한 연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과거와 현대를 접맥시킬 수 있을 것이다.

효과적인 고전문학 교육을 위해서는 고전 문학의 개별적인 장르에 대하여 실제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가 선행되고 그에 따라 교실 현장에서 적용 여부를 검증하면서 지도 방법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그러되면 우리 학생들은 일상생활에서 수수께끼 풀기를 재미있게 할 수도 있고, 가사 짓기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없이 표현할 수도 있고, 민요를 지어 부르는 단계까지도 가능하리라고 믿는다. 지식은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는 것이겠지만 문학은 지식이 아니고 삶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삶 속에서 문학을 즐길 수 있는 문학 교육이 필요하며, 그러한 방법 연구에 더욱 주력해야 할 것이다.

☆ 가사 짓기 예
 <학교 생활> : 실업계 2년생의 글⁴⁸⁾
 재미없는 수업시간 하품나고 졸음나고
 친구등을 방패삼아 눈치보며 탄짓하다
 선생님의 불호령에 허깨물고 불펜잡고
 시험기간 다가오면 도살장에 가는마음
 할수없이 책을퍼면 안오던잠 다시오고
 찬물세수 하고나서 책을퍼면 또잠오고
 잠깨려고 살포집고 찬물세수 몇번하고
 하다하다 안되면 내일하자 포기하고
 이런일이 시험기간 일주일간 계속되고
 시험끝나 결과보면 눈앞이 캄캄하고
 집에가서 핑계대고 성적표 빼돌린다

48) 이보란, 「고전문학 지도방법에 대한 연구-가사를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교대원,1996.

규방가사의 사적전개와 유형

- 목 차 -

1. 머리말
2. 규방가사의 사적 전개
 - 2.1. 작품의 창작과 향유층을 중심으로 한 전개과정
 - 2.2. 유교적 여범 제도를 기준으로 한 전개 과정
3. 규방가사의 유형별 특징
 - 3.1. 계녀가류 가사 (해석요)
 - 3.2. 탄식가류 가사(기출) -노처녀가 정리요
 - 3.3. 화전가류 가사 (해석요)
 - 3.4. 경축가류 가사
4. 맺음말

1. 머리말

규방가사란 우리 가사문학 양식 중 허부 유형의 하나로서 조선 영조 무렵에 형성되어, 영남 지방 사대부가 규방의 부녀자들에 의해 창작 · 향유되던 양식이다. 여성들에 의하여 창작, 향유, 전승되어 온 가사작품(49)만을 규방가사로 보는가 하면, 작가의 성별에 관계없이 독자가 여성에 한정된 것만을 규방가사로 인정하는 경우(50)와 남성에 의해 창작된 작품을 규방가사라고 하기에는 부적당하지만, 오랜 세월을 걸쳐 여성들에 의해 임히고 필사되는 동안 원작자의 개성을 잃고, 여성의 작품인 것처럼 독자에게 수용되었다면 규방가사라고 해도 무방하다(51)고 여기기도 한다.

규방가사에 대한 명칭은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로 학자들에 따라 임의적으로 선택되어 달리 사용되고 있다. 고교형(52), 사재동(53), 이재수(54) 등은 '내방가사'라 하고, 성옥연(55), 권영철(56) 등은 '규방가사'라고 하며, 일부 학자들은 수용자를 중심으로 하여 '여성가사'라는 명칭(57)을 내세우기도 한다.

규방가사에 대한 최초의 연구는 1933년 일인 학자 고교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58) 그 이후 1960년대 이전까지 규방가사에 대한 연구는 답보 상태에 머물다가 1960년대 이후 이종숙이 경북 영주 · 봉화 지역을 답사, 채록하여 「내방가사 연구(1), (2)」(59)를 펴냈다. 이후 규방가사의 명칭, 분포 및 발생 지역에 관한 연구(60)와 자료의 수집, 분류 등에 대한 연구(61)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자료집으로서는 이재수가 직접 수집한 자료 600여 수를 프린트 판으로 낸 것(62), 권영철이 영남 지역에서 직접 채록한 6000여 수의 작품 중에서 자료적 가치가 높은 것들을 선별하여 2권의 작품집으로 낸 것(63), 임기중이 가사집 속에 산재해 있는 규방가사 작품들을 집대성 한 것(64)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규방가사의 일반적 성격 정립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최근에는 여성문학 연구자들에 의해 주석 작업(65)이 이루어졌고, 규방가사의 문학성에 초점을 두고 미의식(66)과 주제의식(67)을 밝힌 연구, 작품론 중심으로 규방가사를 심도있게 다룬 연구(68)가 나왔다.

김문기는 일반적으로 가사문학을 향유층만을 대상으로 하여 분류하여 양반가사, 평민가사, 규방가사로 나누는 분류가 교차분류의 오류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양반가사와 평민

가사로 나누는 것은 그 기준이 사회계층이고, 규방가사라는 가사군은 성에 그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69) 규방가사 중에서도 교혼적인 내용, 즉 계녀가 계통의 가사는 대부분 양반가사이고, 독특한 생활체험을 읊은 과부가 계통의 가사는 대개 서민가사(70)의 성격을 지닌다고 밝혔다.

2. 규방가사의 사적 전개

규방가사는 18세기 영조시대에 양반가사를 이어받아 영남지방 양반부녀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처음에는 父祖들이 출가하는 딸들에게 가사형식으로 된 교훈가의 작품을 지어 주면서 타이르고, 읽어주고, 풀이하여 주었던 것인데, 사대부가 여성들이 이에 익숙해지면서 모방 · 창작하여 필사로 전승하게 된다. 그러는 동안 보다 많은 작품을 향유하게 되었고, 교훈가로 시작하였던 것이 사대명절의 勝會나 정월 보름의 <가스놀이>, 봄철의 <화전놀이> 등을 즐기면서 창작하기도 하고, 공동창작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규방가사의 전개 과정은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권영철과 정길자의 견해를 살펴볼 것이다.

2.1. 작품의 창작과 향유층을 중심으로 한 전개과정

권영철은 규방가사의 사적 전개 과정을 4기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그 기준은 작품의 출현으로부터 내용과 향유층의 확대 과정이 중심이 된다.

제1기 : 발생기

영조시대, 즉 18세기가 이 시기에 해당한다. 양반가사로부터 이어받은 규방가사는 아직도 그 터전을 완전히 잡지 못하고 남성들이 써준 것을 익히거나 모방하거나 하다가 마침내 창작에까지 이른 시기이다. 이 시기의 작품은 거의가 교술적인 교훈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제2기 : 발전기

제1기 이후 갑오년(1894)까지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에도 여전히 교훈가가 성행하였으나, 한편 문학적 소재를 다방면으로부터 얻어 신변탄식류를 필두로 현재 얻어 볼 수 있는 20여 유형을 이룩한 시기로, 규방가사의 융성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에서는 규방가사의 형식도 정제되고 묘사도 冶金되어 규방가사다운 것을 창작도 하고 공동제작도 하여 우수한 모방작도 만들었다. 특히 이 시기에 주목할 것은 규방가사의 세력이 강하여 소설, 내간, 제문도 규방가사 화했으며, 마침내는 외국문학작품이나 역사서까지도 번안되어 규방가사에 흡수되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다.

제3기 : 개화기(융성기 후기)

갑오경장으로부터 일제시대를 통틀어 이 시기로 볼 수 있다. 일제시대를 개화기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으나, 다음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함께 보았다. 즉, 조선조적인 가사문학이 생명을 다해 가고 있었으나 개화기에 이르자 규방가사가 아연 증중하여 활발해졌다는 사실과 문학 장르의 발전을 정치적인 시대구분과 결코 동일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는 조선조의 전통적인 규방가사가 유가적인 그 바탕은 잃었지만, 개화에의 비판, 일제에의 항거 등을 의식하고 규방가사 자체가 지니는 교술적 설득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조선시대 못지않게 이 시기에 활발성을 띠고 보다 많이 창작되고, 보다 많이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권영철이 수집한 6000여 편의 규방가사 중 약 30%가 넘는 수가 이 때의 작품이며 그 내용 또한 우수한 것이 많은 것도 이 때의 작품이다. 물론 이 때는 시기적으로 현대와 가까운 거리에 놓여 있어 그 수를 많이 얻은 탓도 있겠지만, 이와 같은 그 질과 양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갑오년을 통한 개화기에는 신문명에 대한 비판과 계몽에는 여러 문학 장르가 일제히 호응했다.

보수적이며 비동화성을 지닌 영남지방 양반부녀자들에게는 신체시나 창가, 신소설 이상으로 규방가사에 의해서 지식이 전달되고 국운말세의 비탄이 강조되었고 이것이 다시 일제를 맞으며 땅국의 슬픔과 조국광복의 그날을 지향하는 강력한 설득력을 발휘하여 부녀자들에게 자각을 추구하고 있는 점에서 그 활발성은 다시 한 번 규방가사의 융성을 보게 되었고, 그 시기는 개화기나 일제시대나 공통되는 것이기에 함께 묶을 수 있는 것이다.

제4기 : 쇠잔기

8.15 해방에서 현재까지이다. 8.15해방을 맞아 규방가사가 다시 활기를 띠고 많이 창작되더니 일반가사의 생명과 함께 그 존재의식을 잃고 차츰 쇠잔의 길을 걷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것도 6.25를 겪고는 소멸의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렇다고 이것이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니다. 현재에도 영남반촌에서는 여전히 창작되고 歌會가 있어 보수적인 영남부녀자들은 애써 이것을 보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2.2. 유교적 여범 제도의 변화를 기준으로 한 전개 과정

규방가사는 조선시대의 유교, 가족제도, 여성상, 한국의 여성사와 관련되며, 특히 유교적 여범 중심 제도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따라서 조선의 규방가사 창작은 대략 1세기마다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통계적 여범들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16세기의 규방가사는 주로 문자를 접할 수 있는 상층 가문에서 부덕을 목적으로 한 수신서류의 명분을 교화하는 단계이다. 17세기에는 16세기의 출가외인, 삼종지도, 재가불허 등의 명분론을 제도화하고 본격적으로 시집가는 딸에게 시집살이 10여 항목을 기록하여 훈수에 넣어 보냈다. 18세기에는 남녀 차별적 상속제도가 압도적이었다. 17세기 이전까지 지속되던 남녀의 재산 균분 상속이 18세기 중엽부터는 종법을 채택함에 따라 장자 우대, 남녀 차별적 상속제도가 굳어져갔다. 19세기에는 결혼 제도, 천주교, 동학, 갑신정변 등의 사회적 변화와 맥을 같이 한다. 결혼제도는 남귀여가혼에서 반친영을 정착되는 반면, 17, 18세기의 여범 중심적 여성상이 와해될 계기가 마련된다.

규방가사의 시대 구분은 가사 문학 전체 장르의 시대 구분(71)을 참고하여 기명씨 작가의 생

49) 정길자, 『규방가사의 사적 전개와 여성의식의 변모』, 한국학술정보(주), 2005, 10쪽.
 50) 이재수, 『내방가사 연구』, 형설출판사, 1976, 10쪽.
 51) 서영숙, 『한국 여성가사 연구』, 국학자료원, 1996, 11-12쪽.
 52) 고교형, 『영남대가 내방가사』, 『조선』222, 1933.
 53) 사재동, 『내방가사 연구서론』, 『한국어문학』 4호, 1964.
 54) 이재수는 위의 책에서 '내방'이라고 하면 일반 사회와 절연적인 느낌을 주는데 비해, '내'는 '내'보다 폭이 넓고 남녀의 대립감을 나타내므로 '내방'을 취한다고 하였다.
 55) 성옥연, 『한국규방가사문학고』,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62.
 56) 권영철, 『규방가사연구』, 형설출판사, 1980.
 권영철은 위의 책에서 규방가사 명칭에 대해서 '내방'이라고 하면 좀 속된 감이 있고 '내방'이란 말이 적합하다고 하였으며, '房'은 종래부터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규방'이라고 하겠다고 했다.
 57) 서영숙, 위의 책.
 조동일도 규방가사를 논할 때 '여성가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한국문학통사』 2,3권, 형설출판사, 2007.
 58) 고교형, 『영남대가 내방가사』, 『조선』222, 1933.
 59) 이종숙, 『내방가사 연구(1) : 영주 · 봉화 지역의 자료를 중심으로』, 『논총』15,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1970. 『내방가사 연구(2) : 영주 · 봉화 지역의 자료를 중심으로』, 『논총』17,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1971.
 60) 규방가사의 발생은 고교형 이후 이재수, 성옥연, 권영철 등에 의해서 '영남의 부녀자 사이에서 창작되고 유행한 가사'로 정설화되어 왔다. 그러나 그 후 사재동(위의 글), 박요순에 의해 강원, 경기, 충청, 호남지역에서도 창작, 전승이 이루어졌음이 밝혀졌다.
 61) 이재수 위의 책, 성옥연 위의 글, 사재동 위의 글, 이재수 위의 책, 권영철 위의 책에서 모두 이러한 연구를 선행하였다.
 62) 이재수, 『내방가사연구』, 형설출판사, 1976.
 63) 권영철 『규방가사』 I,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 권영철, 『규방가사 - 신변탄식류 -』, 효성여자대학교출판부, 1985.
 64) 임기중, 『역대가사문학전집』, 여강출판사, 1992.
 65) 나정순 외, 『규방가사의 작품세계와 미학』, 역락, 2002.
 이정숙, 『내방가사의 향유자 연구』, 박이정, 1999.
 66) 허미자, 『규방가사에 표출된 정한』, 『한국여성문학연구』, 태학사, 1996.
 이정숙, 『내방가사의 작가의식과 賦』, 『내방가사의 향유자 연구』, 박이정, 1999.
 67) 허미자, 『근대화과정의 문학에 나타난 성의 갈등구조』, 『한국여성문학연구』, 태학사, 1996.
 백순철, 『규방가사의 작품세계와 사회적 성격』,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68) 서영숙, 『서사적 여성가사의 전개방식 연구』, 『한국여성가사 연구』, 국학자료원, 1996.
 성낙희, 『소고당가사론』, 숙명여자대학교 지역학연구소, 1999.
 나정순, 『규방가사의 문학성과 여성 인식』, 『한국 고전시가 문학의 분석과 탐색』, 역락, 2000.

69) 김문기, 『서민가사연구』, 형설출판사, 1983, 39쪽.
 70) 위의 책, 같은 페이지. 위의 저서에서는 기존의 '평민가사'를 '서민가사'로 대체하면서, '서민가사'를 서민이 짓거나 서민적 사고방식, 즉 서민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이룩된 가사라고 정의내렸다.
 71) 류연석, 『한국가사문학사』, 국학자료원, 1994에서 가사문학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발생기 : 14-15세기, 나옹화상의 <서왕가>, 정국인의 <상춘곡>
 발전기 : 15-16세기(임진왜란), 14명의 작가, 24편의 작품 중 허난설헌의 <규원가>
 융성기 : 16-18세기(선조-경종), 38명의 작가, 63수
 전환기 : 18-19세기(명종-갑오경장), 200여편의 작품 중 규방가사 포함
 쇠퇴기 : 19세기-현재(갑오경장-현재)

존 연대와 작품을 중심으로 한 고증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제1기 : 여성 자각 시대

여성 자각 시대는 수신 서류의 명분론을 접한 상층 가문의 여성들이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는 단계로, 여성이 가상적 명분론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자각하는 시대이다. 이 시기는 본격적인 시집살이의 구축을 받지 않는 17세기 이전을 의미한다.

규방가사 제1기인 여성 자각 시대는 여성의 유교적인 부덕을 적극 권장하는 시기인데, 16세기 중반 이전까지 전대의 유습에 젖은 당시 여성들은 부덕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규제에 쉽게 적응하지 못했다.

16세기 규방가사 작품은 <선반가>⁷²⁾와 <규원가>⁷³⁾가 남아있다.

제2기 : 여범 중심 시대

17세기에는 남녀칠세부동석, 출가외인, 삼중지도, 재가불허 등의 명분론을 제도화함에 따른 엄격한 여성상이 확립되었기 때문에 이 시대를 여범 중심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부덕의 장려책을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시집살이 10여 항목이 증가하여 여성들을 더욱 통제하였기 때문에 여성들에게는 진정한 자기가 아닌, 가상적 자아가 형성된다. 이 시기에는 규방가사의 여성 작가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우암 송시열의 <우암선생계녀서>가 전할 뿐이다. <우암선생계녀서>는 우암이 장녀를 출가시킬 때 손수 지어준 계녀서로, 주로 세상살이의 요령과 훈계를 내세운 경세, 훈민적 교술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가상적인 규범만이 강조되어 있는데, 이 계녀서가 상층가문에서 유행됨에 따라 여성들은 더욱 강압적인 구속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규방가사를 문학과 관련하여 볼 때, 17세기 이후에 나오기 시작한 계녀가가 주로 남성들에 의해 지어진 반면, 18세기 중반 이후 활발하게 창작된 계녀가 작가의 대부분은 여성들이다. 조선 후기로 내려가면서 친족 제도 개념이 변화한 것은 규방가사 창작층의 신분 변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즉, 여성의 인식이 높아지고 생활이 문란해지는 것을 우려한 양반 남성, 또는 그 인식을 그대로 자기화하고 있는 양반 여성들이 이러한 계녀서의 영향을 받아 후기에 계녀가류를 창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제3기 : 여범 · 자존 공존 시대

규방가사의 여범 · 자존 공존 시대를 대략 18세기로 설정한 의도는 남녀차별적 상속제도가 굳어지던 점과, 내면적으로는 남녀차별적 풍조를 비판하는 여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는 예학의 발달과 벌열정치로 인한 문벌 의식이 팽배해지면서 그 의식은 전 사회 계층에까지 하나의 사회 제도로서 정착하게 된다.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의 맹아가 싹트기 시작하면서부터 신분 제도를 조정하는 일이 일어났다. 당시의 여성 정책은 이념, 신분, 사회, 경제, 생물학적 측면 등 다각적으로 여성을 규제하였다. 이렇게 남성 위주의 경직된 사회에서 여성들의 입지는 부정적으로 축소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들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열린 시대를 향한 진보적 추진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즉, 억압적이고도 여범적인 사회분위기 속에서도 가부장적 여범 중심성에서 벗어나 자존 지향적 학문이나 재능을 살리는 다양한 삶을 인정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 시기의 작품으로는 <절명사>⁷⁴⁾, <명도자탄사>⁷⁵⁾, <반효화전가>⁷⁶⁾ 등이 있다.

제4기 : 여범 · 자존 분화 시대

규방가사의 여범 · 자존 분화 시대는 주로 19세기이다. 이 시대는 새로 제정된 결혼 제도와 갑신정변으로 인한 격동의 시대였다. 이 시기의 여성들은 여범 지향적 삶과 자존 지향적 삶 속에서 갈등하게 되므로 여범 · 자존 분화 시대로 설정하였다. 19세기의 흥경래의 란(1811), 농민항쟁(1862), 갑오농민전쟁(1894), 청일전쟁(1894) 등은 봉건체제의 온갖 모순과 그로 인한 계급 간의 대립이 질적으로 비약한 과정인데, 이처럼 급변하는 역사적 상황은 시가사와도 긴밀하게 조응한다. 따라서 규방가사의 내용은 풍요로움과 빈곤 등 상호 모순되는 양상들이 중첩된다. 여성주의적 입장에서 볼 때, 정신적 풍요는 신분 · 성별이 평등해지는 분위기가 상승하는 것이다. 19세기 규방가사의 창작, 향유는 익명, 무명의 작가들에 의해서 활발하게 확대되어 갔다.

이 시기의 작가 의식은 여범 지향성과 자존 지향성이 공존한다. <쌍벽가>(1794)의 연안 이씨, <명도자탄사>(1801)의 남원 윤씨, <부여노정기>⁷⁷⁾(1802)의 연안 이씨, <김대비훈민가>⁷⁸⁾의 순원 왕후 김씨, <금행일기>⁷⁹⁾의 은률 송씨 등의 작가들은 절대적 선악률과 남존여비의

72) <선반가>(1547)는 규방가사 발생 초기의 작품으로 모두 3행이며, 글자 수는 37자밖에 되지 않는 단행의 가사이다. 작가는 농암 이현보의 자당인 권씨 부인이며, 농암이 중종 22년(1527)에 동부승지가 되어 자신을 보러 올 때 기쁜 심정으로 지어 여자 하인에게 부르게 했다는 환영의 노래이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먹디도 도홍사 承政院 宣獻야
 노디도 도홍사 大明殿 기술가
 가디도 도홍사 父母다한 길허야

73) 허난설헌(1563-1589)의 <규원가>는 모두 50행으로, 그 소재나 주제 면에서 제도미문체 사대부 가사와는 다르다. 이 작품은 한국시 전통의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여성적 목소리로 나타내고 있다. 조선 후기의 규방가사 향유자들은 <규원가>를 애송하면서 동방상현의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창작하는데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탄식가류의 연원은 <규원가>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74) 영조조 과내용의 아내 전의 이씨(1723-1748)의 작품으로, 화자가 남편을 잃은 후 그 애절한 슬픔을 담고 자살할 때 남긴 가사이다. 전의 이씨의 자살 행위는 남성 중심적 시각에서 볼 때에는 정문을 세워 기릴만한 일이지만,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볼 때는 집단정신의 여범을 맹신한 결과일 뿐이다.

75) 작가는 남원 윤씨로 남편과 사별 후 쉽게 흥분, 우울, 불안해 하다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자결하였다. 화자는 세상을 떠난 남편을 원망하지 않고, 남편의 죽음을 오히려 자신의 정성이 부족한 결과로 간주하고 있다. <절명사>와 함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에게 보이는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단적 여범의식을 자기화한 결과로, 죽음을 택한 것이다.

76) 작가는 이중실의 처 안동 권씨이다. 화자는 여성에게 불리한 사회적 모순을 통찰하고, 남존여비적 관습 속에서도 남성들을 향해 도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작가의 의식이 여범지향과 자존 지향이 공존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러한 의식은 침묵하던 16세기의 여성 작가가 다소 회복되어 가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여범 지향이 우세하고 자존 지향 의식은 열세에 놓여 있다.

77) 연안 이씨가 큰아들 태좌가 부어 현감에 제수되고, 다시 흥분관 수찬에 제수되자 그 기쁨을 아울러 표출한 것이다. 화자는 아들 덕분에 두 가지 자존의식을 획득하였는데, 하나는 가문의 자존 의식이고, 다른 하나는 여성주의적 입장에서 의미 있는 문밖 출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78) 작자인 순원왕후 김씨는 여성이 사우고를 잘하면 착한 자식을 얻는다는 여범 지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 작품이 지닌 규방가사적 의의는 궁중의 여성까지도 규방가사 창작에 참여하여 여성 작가의 확장을 가져왔다는 점이다. 순원왕후 김씨의 작가 의식에는 여범 지향성과 자존 지향성이 공존하고 있다.

79) 작가인 은률 송씨는 여범 중심성에 젖어 있다. 화자는 모처럼 규문 밖을 나가 심신을 풀고 그 감회를 친정 부친

명분론을 준수하기 때문에 여범 지향적이다. 그러나 <복선화음가>의 이씨 부인, <기수가>⁸⁰⁾의 파평 윤씨 등은 여범 지향적 모순을 인식하고 비판하기도 한다.

제5기 : 여성 자존 시대⁸¹⁾

20세기의 사회적 배경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여성교육기관의 확대와 관련된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여범 지향적 여성으로서의 삶과 근대적 자아 지향적 여성으로서의 삶 사이에서 갈등하게 된다. 여성의 자존 시대는 대략 20세기로부터 현재까지이며 필연적으로 19세기 여범 자존 · 분화의 시대를 거치게 된다.

자존의 개념은 17, 18세기의 여범 중심 의식을 탈피하여 개성적 자아의식에 중점을 두고 자아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의미한다. 20세기 이전까지는 대가족 내의 혈통 계승자, 운영권자로서의 주부권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20세기 여성의 자존 지향이란 우선, 사회적 인 정치권, 직업권, 교육권 등 권리의 3요소를 획득하는 것이다. 권리의 3요소는 가문을 대표하는 집단적 자존 의식을 지양하고 개인적 자존 의식을 근본으로 하는 자기 자신의 자아 실현을 의미한다. 여성의 자존 의식은 여성의 재산권, 교육기관의 확대, 여권운동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규방가사에 나타난 근대의 자존 지향 의식은 여성에 대한 조선조의 구조적 모순을 수용하였는가 또는 극복하는 과정이 보이는데 따라 구분된다.

그러나 20세기에 나타난 여성의 자존 지향은 아직 사회적 제약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존 지향 의지를 표출할 뿐 완전한 자아실현을 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어느 정도 '나'의 존재를 확인하는 자존을 획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지금과 같은 현대 여성의 자존 지향 의식은 16세기 여성 자각 시대에서 출발한다. 17, 18세기 여범 중심 시대의 여성들은 대부분 자신의 열등의식을 침묵으로 대응하다가 19세기 여범 · 자존 분화 시대를 거쳐 20세기에 이르러서야 정치권 · 교육권 · 문화권 등의 자존의식을 가지게 된 것이다.

3. 규방가사의 유형별 특징

규방가사의 대표적 유형은 계녀가류, 탄식가류, 화전가류 등의 세 가지이다. 계녀가는 시집가서 해야 할 행실을 가르치는 것이고, 신세타령을 늘어놓는 것이 탄식가이다. 화전가는 놀이를 즐기는 감회를 나타낸 것이다. 이 외에도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지어 부른 경축가⁸²⁾도 있다.

본 장에서는 규방가사의 유형을 계녀가류, 탄식가류, 화전가류, 경축가류로 나누어 각각의 특징을 알아보고 대표적인 작품을 살펴볼 것이다.

3.1. 계녀가류 가사

계녀가류는 계녀서에서 유래한 것으로, 산문으로 서술하던 시집살이하는 여성의 도리를, 알기 쉽고 외기 좋도록 가사로 옮긴 것이다. 이재수는 계녀가를 규범적 계녀가와 체험적 계녀가로 나누었고, 권영철은 전형 계녀가와 변형 계녀가로 나누었다.⁸³⁾

본 절에서 살펴볼 <계녀가>는 이정옥이 '계녀가'류의 규방가사를 교합 구성한 것으로 전체 구성은 '서인 - 사우고 - 사군자 - 화동생친지 - 봉제사 - 접빈객 - 태교 - 육아 - 어비복 - 치산 - 행신 - 향심 - 결연'등의 순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전형적이고 고정적인 형식에서 조선조 후기로 가면서 점차 창작자의 개인적 체험과 시집살이의 한탄이 많이 섞여 들어감으로써 문학성이 돋보이는 체험적 계녀가사류가 많이 유포되기도 하였다.

아해야 들어봐라 내일이 신행이라
 네 마음 어떠하며 이 심사 갈밭없어
 우마에 짐을 싣고 금반을 굳게 메어
 친정을 하직하고 시가로 들어가니
 부모께 떠날 적에 경계할 말 하고 많다
 ... (중략) ...
 아해야 들어봐라 또 한 말 이르리라
 남의 집 처음 갈 때는 조심이 많건마는
 세월이 많아가면 흘만키기 쉬우려니
 처음의 가진 마음 늙도록 변치마라
 옛글에 있는 말과 세정에 담은 일로
 대강으로 기록하여 책을 매서 경계하니
 이 책을 잃지 말고 시시로 내어보며
 행신과 처세할 제 유익하게 되었으라
 그밖에 경계할 말 무수히 있다만은
 정신이 아득하여 이만하여 그치노라⁸⁴⁾

이처럼 일반적으로 '계녀가'류의 가사는 출가하는 딸에게 부녀의 도리와 행실을 잘하도록 훈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비해 지금 살펴볼 <뉴실경계사>⁸⁵⁾는 이미 시집간 딸에게 시집살이를 잘하도록 당부하는 내용으로 된 체험형 계녀가류 가사이다. 특히 개인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시집가는 딸의 시가와 가문이 명문세가임을 주지시켜 시집살이의 사명감을 갖도록 하는 동시에 시집간 딸이 첫아이를 잃게 되자 낙심하지 않도록 위로하는 등 세심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함께 어노비, 봉제사, 접빈객 등 여성으로서 닦아야 할 부덕과 의무를 훈

계 보내려는 의도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80) 작가는 파평 윤씨 병구의 딸로서 전의 이씨에게로 출가한 하당댁이고, 창작 연대는 1867년이다. 내용은 출가한 여성으로서 오랜만에 친정에 귀넷맞이한 감격을 노래한 것이다.

81) 이 시기의 작품으로 <의병가>, <답기수가 · 반기수가 자소가 · >, <호도가 · 위유가 · 괴소사>, <권효가 · 경계사>, <생조감구가>, <노탄이라>, <회심곡>, <강릉화전가>, 『최송설당집』, 『은촌내방가사집』, <회소곡> 등이 있다.

82) 조동일은 규방가사의 유형을 계녀가, 경축가, 풍류가, 자탄가의 네 가지로 나누고 있다. 『한국문학통사』3, 지식산업사, 2007.

83) 계녀가 가운데 일정한 격식에 맞춰 공식적으로 지어진 작품군을 전형계녀가 혹은 규범적 계녀가라고 부르고, 그에서 벗어나 개별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작품군을 변형계녀가 혹은 체험적 계녀가라 부른다. (박경주, 『변형계녀가의 장르적 특성과 담화 양상』, 『조선 후기 시가와 여성』, 월인, 2005.)

84) 이정옥, 위의 책, 255-261쪽 참고.

85) 경북 안동에서 발굴된 작품으로 서예 류성룡의 후예인 풍산 류씨 후조당 집안에 시집을 간 조선조 개국공신인 이원의 후손인 고성 이씨 부인의 자당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계하며, 반가의 부녀다운 예절을 갖추어 시집살이를 잘하도록 일깨워주고 있다. 전형적인 '계녀사'류 작품에서 일탈하여 개인의 체험적 요소가 많이 개입된 변형 계녀가류의 작품이다.

뉴실아 드러바라 내몸이 여자로서
 양반의 기백이라 협곡의 생장하야
 견문이 바회 업서 세계를 다 모르니
 다정이 곁해 안자 정영이 드러바라
 우리 선조 용현 선생 개국초 공신으로
 승낙대부 좌의정이 문회공의 현손이요
 문헌공의 증손이요 행촌선생 손자씨고
 평재선생 자제시고 천정의 지하 말삼
 황염재상 일너스니 풍도가 거룩하고
 심덕이 인후하다 자제 칠형계오
 짜님은 눈형제라 내외손 번성하야
 반조정이 거의 찾다
 ...(중략)...
 네 한몸 도라보니 병근이 아매 있다
 적연해 초산 말은 내게 하기 알시렵다
 의원보고 약을 지어 구할 생각 가자더니
 약 다 먹고 우름 곳쳐 어름갓치 자자진다
 애씨던 바람업서 허위허위 허새로다
 아해 비록 업새스나 너 몸 소성 할나던이
 반년을 누엇밧쳐 식음을 전폐한다
 룩월달 십구일의 너의 시모 문부하고
 분망으로 내가 갈 쟈 가물후 장마이라
 물이 불어 월파된다 너 한몸 일연내의
 초상을 두 번 당해 애다름 과함으로
 소성하기 쉬울손가 어린 것 업센 일은
 눈의 삼삼 발피였다 방슈자월 성흔씨긴
 내 후회 새로워라 그말 부대 다시 마라
 나오면 자식이라
 네 치울 일을진댄 후복을 생각하야
 가리여서 치웠으니 원망말고 탓설마라
 도지요요 작작기화 화상두고 이름이라⁸⁶⁾

3.2. 탄식가류 가사

신세한탄을 하는 사실은 어떤 종류의 규방가사에도 끼어들 수 있는데, 계녀가에서는 윤리로, 경축가나 화전가에서는 즐거움으로 놀러두었다. 그런 제어장치가 제거되어 마음 속에 누적되어 있는 불만을 쏟아 놓은 것이 탄식가이다. 여성이기에 겪는 고난이 많아 사실이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부모 · 형제와 헤어져 시집살이에 시달려야 하는 괴로움과 청춘과부의 고독을 탄식한 것 등이 있다.

안동지방에 널리 퍼져 있는 <福善禍淫歌>는 제목 그대로 '착한 사람에게는 복을 내리고 못된 사람에게는 재앙을 내린다'는 내용의 교훈가사로, 이 한림의 증손녀 이씨 부인의 창작으로 추정된다. 이씨 부인이 신행가는 딸에게 가난한 집에 시집가서 온갖 노력을 해 가문을 일으킨 사연을 들려주고 교훈을 삼도록 한 내용이다. 계녀가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으면서 중간 대목은 탄식가라고 할 수 있다. 찢어지게 가난한 살림살이를 피나는 노력으로 다시 일문을 일으켜, 고대광실 높은 집을 축성하는 한 여인의 일대기이다. 남편 뒷바라지를 잘하여 장원급제하여 도문하는 영화를 함께 노래하고 있다.

고난을 이겨내고 극복한 훌륭한 행실을, 함부로 굴다가 부잣집을 떨어 먹는 괴퐁어미의 몰락상과 대조시켜 서술하고 있다.

소학 효경 열여전을 십여세에 외워 내고
 처신법절 행동거지 침선 방적 수 놓기도
 십사세에 통달하니 누가 아나 칭찬하랴
 악한 행실 경계하고 착한 사람 뽀을 받아
 일동일정 선히 하니 남녀노소 하는 말이
 천강적강 이 소저는 부귀공명 누리리라
 그 얼굴 그 태도는 천만고에 처음이라
 이러하기 칭찬받고 금옥으로 귀히 길러
 십오세가 그에되니 여자유행 법을 좇아
 강호로 출가하니 김 한님의 증손부라
 ...(중략)...
 탄탄 정로 조흔 길로 하루 이틀 사흘 안에
 강호에 득달하니 시택이 어디련고
 주렴 속에 잠간 보니 수간모옥 청계상에
 동래서복 가련하다
 반별은 종건마는 가세가 영체하니
 신행에 허다 하인 밥인들 먹일소냐
 합천지수 팔연판은 쟁반에 붉은 대호
 도로혀 무색하다
 폐帙을 드린 후에 눈을 감고 앉았으니
 허다한 구경꾼이 서로 일러 하는 말이
 아까울사 저 신부야 곱기 괴히 기른 남자
 간구한 저 시집에 그 고생을 어찌 할고
 극난하기 혼인이라 저대도록 속았는고
 ...(중략)...
 호련이 잠이 드러 정신이 혼흔튼니

86) 이정옥, 위의 책, 262-267쪽 참고.

큰 때문에 무삼 일노 저대도록 요란하고
 청천백일 무삼 일고 천동벽역 고이하다
 놀래여 잠을 깨여 완자 영창 열트리릭
 똥배 불은 하님연을 저리 급히 연준난고
 옛쥬시오 하난 말이 백번인지 창안 백발
 우리 존구 청여장을 돌너 집고
 황황히 드러와서 날을 보고 하난 말삼
 이번 가거 즉일 창방 너에 남편 내 아달이
 장원급제 하였스니 이른 경사 또 있나냐
 지금까지 오래 살아 부귀공명 이른 경사
 애다름손나 너의 시모 삼연만 더 살드면
 동히동낙 하련마난 혼자 보기 앓갑도다
 내 마음 압호거든 너의 내위 오작하랴
 ...(중략)...
 딸아딸아 아기 딸아 복선화음 하난 법이
 이를 본니 분명하다 저 건너 괴퐁어미
 너도 거면 안보았나 허다시간 포진천물
 남용남식 하고나서 그 모양이 대였고나
 딸아 딸아 고명 딸아 괴퐁어미 경계하고
 너에 어미 살을 받아 세금결시 이른 말은
 부대 갈곡 명심하라
 딸아 딸아 울지 말고 부대부대 잘가거라
 효봉고구 승순군자 동기우애 지친 화목
 기쁜 소식 듣기 오면 명년 삼월 화류시에
 모녀 상봉 하나니라⁸⁷⁾

<노처녀가>는 조선 후기에 출현한 것으로 보이는 작자 미상의 작품으로, 부모가 좋은 혼처를 가리는 바람에 나이 사십이 넘도록 혼인을 하지 못한 노처녀의 비애를 그린 것이다. 노처녀가 혼인을 하지 못한 것은 가난한 자기 집안의 처지 때문이었다. 그러나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사대부가의 체면이었다. 요컨대 그녀는 가난하면서도 체면을 고집하는 몰락 사족의 후예였기 때문에 노처녀로 늙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노처녀는 자신의 신세를 체념하거나 순응하지 않고, 몰락사족인 부모의 무능과 허위를 통박하고 항변한다.



3 · 4조 및 4 · 4조 124구로 되어 있는 이 작품은 유통되는 과정에서 소설화되기도 하여 가사의 소설화라는 조선 후기의 문학사적 현상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장편 규방가사에 속하며, 작품 가운데 액자형식으로 꿈속에서 이루어지는 장면을 삽입하는 서사적 기법을 이용한 수준 높은 작품이다.

넋적의 혼 너지 이시되 일신니 갖은 병신이라
 나히 사십이 넘도록 출가치 못하여
 그져 천녀로 이시니 옥빈홍안니 스스로 늘거가고
 설분화용이 공연이 없서시니 셔름이 골수의 뒹침
 분하미 심중의 가득하여 밋칠 듯 취홀 듯 좌불안석하여
 세월을 보너더니 일일은 가만니 탄식 왈
 나는 엇지하여 이러호고 설기도 충양업고
 분하긴 그지없너 이쳐로 방황하더니
 문득 노리를 지어 화창하니 갈와사되
 어와 너 몸이어 셤고도 분흔지고 이 셔름을 어이하리
 ...(중략)...
 평칭의 밋친 이년 오날밤 춘몽중의
 혼인이 되거고나
 압쓸의 차일 치고 뒹들의 숙수 앓고
 화문방석 만화방석
 안팎없시 포진하고 일가권속 가득 모혀
 가화 쫓고 다담상이 이리저리 오락가락
 형님이며 아자미며 아오년 족하불이
 진단장 자른단장 거력하게 모혀시니
 일기는 화창하고 향늬는 축비흔다
 문견이 요란하며 신낭을 마자들 제
 위의도 거룩하다
 ...(중략)...
 감은 눈을 잠간 쓰고 신낭을 살펴보니
 수망 치던 김도령이 날과 과연 비필일다
 너 꺾이 영검하여 이쳐로 만나나가
 하날리 유의하여 너계로 보너신가
 이쳐로 노닐다가 죄독의 바람 드러
 인연을 못 닐우고 기 소리의 놀라 쯔니
 침상일몽이라
 ...(중략)...
 이제난 괴탄없다 먹은 귀 발가지고
 병신 팔을 능히 쓰니 이 아니 희한흔가
 혼인흔 지 십 삭 만의 옥동자를 순산하니
 쌍턱을 이어 알이 즐겁기 충낭업너

87) 이정옥, 위의 책, 273-287 참고.

기지가 영충이오 문필리 비상하다
부부의 금슬 조코 자손이 만당하며
가산이 부요하고 공명이 가초잇스니
이 아니 무던흔가
이 말이 가장 우습고 희한하기로 기록하노라⁸⁸⁾

3.3. 화전가류 가사

이재수는 화전가류는 놀이를 소재별로 크게 풍류적 요소와 교훈적 요소, 탄식적 요소로 살핀 다음, 다시 화전가, 화류가, 화수가, 기행가, 답가, 기타 등 6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⁸⁹⁾ 권영철은 화전가계 가사, 화수가계 가사, 율놀이계 가사 등 셋으로 나누었고⁹⁰⁾, 주정자는 정형적 화전가와 변형적 화전가로 나누었다.⁹¹⁾

본 절에서는 경북대본 <화전가>를 살펴볼 것이다.

경북대본 <화전가>의 창작 연대는 고종 23(1886)년으로 추정된다. 작자는 경북 순흥지역 출신의 처녀로 청상과부가 되어 외로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 하루 동안 화전놀이를 하는 동안 자신의 심사를 텐동어미가 대변하여 술회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서민들의 생활과 삶이 우회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총 815행으로 된 장편 내방가사이다. 이 작품은 전체 17단락으로 구분되며 서사, 본사, 결사 형식으로 본사에 ‘텐동어미 일생담⁹²⁾’이 액자형식으로 전후의 화전놀이 가사 가운데 삽입된 대서사 내방가사이다.

가세 가세 화전을 가세 쫓 지기 전의 화전 가세
잇씩가 어늬 썩가 썩마참 삼월이라
동군니 포덕탁하니 춘화일난 썩가 맛고
화신평이 화공되어 만화방창 단청되니
이른 썩을 일치말고 화전노름 하여 보세
불출문회 하다가서 소풍도 하려니와
우리 비록 여자라도 흥취 잇게 노라보세
...(중략)...

텐동어미 뉘다가서 썩 나서며 하는 마리
가지나 오가지 말고 저발 적선 가지 말게
팔자 혼탄 읊실가마는 가단 말이 웬말이오
잘 만나도 님 팔자요 못만나도 님 팔자지
백연 히로도 님 팔자요 십칠세 청상도 님 팔자요
팔자가 조乙 량이면 십칠세의 청상될가
신명도망 못홀디라 이니 말을 드러보소
...(중략)...

나는 집의서 살임하고 영감은 다니며 옛장사라
호두약엿 잣박산의 참기 박산 썩박산의
산자과질 빅 사과乙 갖초갖초하여 쥬면
상자고리에 다마 지고 장마다 다니며 락미홀다
의성장 안동장 풍산장과 노로골 너성장 풍고장의
흔달 육장 락장보니 옛장사 조침지 별호되니
흔달 두달 잇티 삼연라니 웃지하다가 티고 잇서
열달 비술너 회복하니 참말로 일기 옥동자라
영감도 오십의 첫아덜보고 나도 요십의 첫아이라
영감 흠미 마웁아 어리장고리장 사랑하다
...(중략)...

그 자식이 잘도 난니 인직야 한번 사라보지
한창 이리 놀리다가 웃던 친구 오더니만
슈동별신 큰별신乙 아무날부턴 시작하니
밋천이 죽거덜낭아 뉘든은 님 덕 쥬세
호두약엿 마니 곡고 가진 박산 마니 하계
이번의는 슈가 나리 염감임이 올케 들고
잡살 사고 지름 사고 호두 사고 추자 사고
참씩 사고 밤도 사고 칠팔십급 미천이라
닷동의 드리 큰 솟티다 삼사실을 썩노라니
한밤중의 바람 이자 굴둑으로 불이 논니
온 지반의 불뼉터서 화광이 충천하니
인사불성 정신읍서 그 옛물을 다 퍼내고
안방으로 드리달나 아달 안고 나오다가
불더미의 없더져서 구불면서 나와보니
영감은 간곳 읊고 불만 작고 타논고나
이웃사람 한는 마리 아 살이로 드러가더니
상가 썩지 은나오니 이제 하마 죽어고나⁹³⁾
...(하략)...

3.4. 경축가류

88) 이정옥, 위의 책, 367-378쪽 참고.

89) 이재수, 「<화전가>연구」, 『여성문제연구』 2, 효성여자대학교, 1972.

90) 권영철, 「규방가사에 있어서 풍류소영류의 연구」, 『여성문제연구』 11, 효성여자대학교, 1982.

91) 주정자, 「화전가 연구」, 효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7.

92) 이 <화전가>는 텐동어미가 네 번이나 시집을 갔으나 끝내 과부를 면치 못한 기막힌 일생을 그린 비극적인 가사이다. 남편과 백년해로하며 부귀영화를 누리기를 바라나 현실은 결혼만 하면 남편이 죽어 유리결식하게 된 사실이다. 김문기, 위의 책, 174쪽.

텐동어미는 이방의 딸이며 이방집에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그네 뛰다가 떨어져 죽어 17세에 과부가 되었다. 개가를 했더니 둘째 남편은 군포 때문에 빈털터리가 되어, 타관에 가서 드난살이를 하며 월수를 놓아 돈을 늘였지만, 괴질이 돌아 돈을 쓴 사람들과 함께 죽었다. 지나가는 등짐장수를 얻어 살다가 다시 과부가 되고 말았다.

옛장수를 만나 아들을 낳고, 별신굿을 할 때 한뫼 보려고 옛을 고다가 불이 나서, 남편은 타죽고 자식은 데어서 이름을 텐동이라 하게 되었다. 살아나갈 길이 없어 텐동이를 업고 고향인 경상도 순흥으로 돌아갔다. 남편은 화전놀이를 하며 즐기는 자리에서 그동안 겪은 일을 길게 이야기해서 받아 적은 사연이라는 이유에서 작품 이름을 <화전가>라고 했다.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 392쪽.

93) 이정옥, 위의 책, 321-346쪽 참고.

경축가는 경축할 일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졌다. 부모의 회갑이나 조부모의 회혼을 경축한 노래가 흔하다. 사는 동안에 고생만 하고 뚜렷하게 이룬 것이 없어도 장수를 누리고 자손이 번창한 것을 큰 경사로 여겼다. 영덕지방에서 나온 <수경가>에서는 부모 회갑을 맞이해 수하들이 어리광을 부리며 노느라고 가장행렬까지 하는 거동을 우스꽝스럽게 그려냈다. 드물게 부모가 자식의 과거급제를 경축한 노래도 있다. <쌍벽가>가 그것으로, 1794년(정조 18)에 아들과 조카가 나란히 과거를 급제한 것을 보고 감격을 술회하며 두 사람의 전도와 가문의 번영을 축원한 노래이다.

...(전략)...

春風氣像 형이로다. 秋水精神 아우로다
목늘하신 두 大人대구입이 다 되셨네
文章이 若此던들 蘇老泉과 같을게요
道德이 高名터면 정선공을 부워하라
明倫堂 大成殿에 叔梁紇이 높았으니
제성전 제경야를 그 뉘가 막을소냐
정정하신 저 부인들 괴석으로 들었더니
拱手하고 안관하니 석중옥이 아니신가
天稟이 正大하니 社稷之臣 재위시고
기되 엄중하니 직사를 낳으신가
聖經賢傳 배에 있고 諸子百家 입에 있네
평생이 窮惡하되 依然함도 의연하다
京鄕으로 來往하니 三遷之教 배우신가
산고하매 옥이 나고 해심함에 금이 나서
대아의 옥성금성一門을 潤德하고
中央의 和風甘雨 九族을 和睦하네
...(후략)...

4. 맺음말

우리 가사문학 양식 중 조선 영조 무렵에 형성되어, 영남지방 사대부가 규방의 부녀자들에 의해 창작 · 향유되던 양식을 규방가사라고 한다. 규방가사에 대한 명칭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학자들마다 달리 선택하는 편이며, 이에 대한 연구는 1933년 고교형의 연구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초기의 학자들에 의해 6000편이 넘는 규방가사 작품이 발굴되었으며, 후학들이 그에 대한 내용, 형식적인 측면의 연구를 내놓았다.

본고에서는 규방가사의 사적전개과정을 작품의 창작과 향유층을 중심으로, 조선의 여범 중심제도의 변화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결과 전자의 경우, 발생기 -> 발전기 -> 개화기 -> 쇠잔기의 네 시기로 나누어 짐을 알 수 있었다. 후자의 경우는 여성 자각 시대 -> 여범 중심 시대 -> 여범 자존 · 공존 시대 -> 여범 자존 · 분화 시대 -> 여성 자존 시대의 다섯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규방가사의 유형은 학자에 따라 세 가지에서 네 가지 정도로 나누는 편인데, 본고에서는 겨너가류, 탄식가류, 화전가류, 경축가류의 네 가지로 나누고, 각 유형을 대표할 만한 작품들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규방가사는 16세기 허난설헌의 <규원가> 이후 현재까지 시대의 변화를 그대로 반영하며 이어져 내려오는 문학이다. 규방가사 속에는 여성들의 의식과 삶이 녹아 있으며, 그것은 때때로 변화하기도 하고 지속되기도 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규방가사 작품을 수집 · 분류하여 정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규방가사의 주제의식과 미의식을 밝히고, 나아가 거기에 깃든 여성의식을 밝히는 일인 것이다.